I

권역별 경제 동향

1. 수도권 49

2. 동남권 57

3. 충청권 64

4. 호남권 72

5. 대경권 80

6. 강원권 88

7. 제주권 96

1. 수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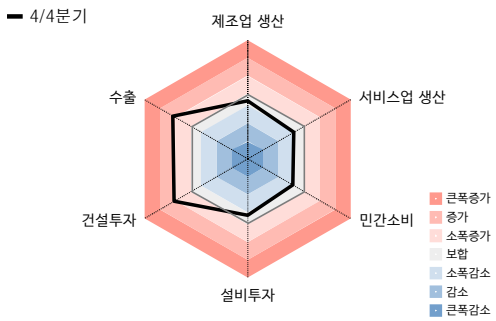
(1) 개 황

수도권 경기 보합

2023년 4/4분기 중 수도권 경기는 3/4분기 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조업 생산은 보합 수준을, 서비스업 생산은 소폭 감소하였다. 수요 측면에서는 민간소비는 전분기보다 소폭 감소, 설비투자는 보합 수준, 건설투자 및 수출은 증가하였다.

10~11월 중 취업자수는 3/4분기에 비해 전년동기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한편 동 기간 중 소비자물가의 상승폭은 확대되었으며, 주택매매가격은 상승폭이 축소된 반면 전세가격 상승폭은 확대되었다.

경기 레이더[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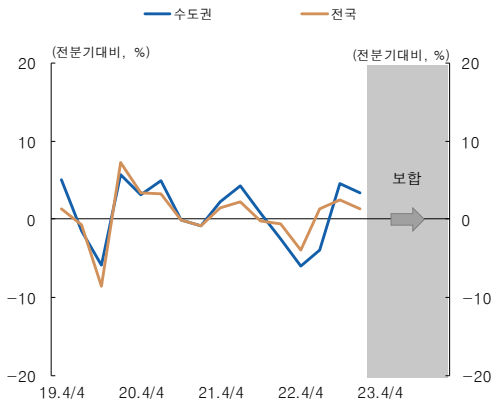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하여 평가한 것임

(2) 생 산

제조업 생산 보합

4/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디스플레이가 소폭 증가하였다. 반도체, 기계 및 장비는 소폭 감소하였고, 의약품도 감소하였다.

제조업 지역경기전망지수[1)2)]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디스플레이는 공급과잉 해소, 스마트폰 신제품 OLED 패널 공급[1)] 등 중소형 패널의 수요 증가, 자동차 OLED 시장 창출 본격화[2)] 영향으로 전분기보다 생산이 소폭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자동차는 높은 할부금리 등의 영향으로 내수가 위축[3)]되었으나 부품공급 차질 기간중 이연된 수요와 국산 친환경차 및 SUV에 대한 해외 선호[4)] 지속에 따라 생산은 증가하였다.

1) 업계에 따르면 중국 경쟁 업체의 특허분쟁 및 납품 지연 이슈로 새로 출시되는 아이폰15 패널 물량 대부분을 국내 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다.
2) 차량용 OLED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36%의 고성장이 예상되며, 이는 LCD가 포함된 일반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 성장률(8%)을 4.5배 상회하는 수준이다.(OMDIA) 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점유율 1위(71%, 금액기준)이다.
3) 10월 자동차 내수 판매(전년동월대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 국산차 -1.4%(116,863대), 수입차 -5.1%(24,486대)
4) 북미지역에서 현대 팰리세이드, 투싼 HEV, 기아 셀토스, 스포티지 HEV 등 SUV와 친환경차의 판매 호조로 10월 자동차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4.8%(대수 기준) 증가하며 1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편 반도체 생산은 최근 AI 반도체용 고부가제품 수요 확대[5]와 스마트폰 판매 호조[6] 영향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반도체 수급 개선을 위한 공급업체들의 추가 감산 등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기계 및 장비는 국내 건설 시장 침체로 인한 건설 기계 수요 감소가 지속되며 생산이 소폭 감소하였다. 의약품은 일부 기업이 합병[7]에 대비하여 생산을 조정하면서 감소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4/4분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도체는 수급 개선 및 메모리 반도체 단가 상승세[8]로 인한 고객사 구매 심리 개선, 스마트폰 교체수요[9]에 따른 판매량 증가, 고사양 반도체 생산 확대 영향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의약품은 일부 기업의 관계기업과의 합병에 따른 매출 증대로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자동차는 글로벌 대기 수요 해소 및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과 일부 기업의 생산조정 영향[10]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철강은 조선업 수주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설 경기 침체 및 중국산 제품 유입으로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스플레이는 중소형 OLED 시장 확대[11]로 업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며 전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석유화학·정제는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원유 감산으로 유가가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생산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업 생산 소폭 감소

4/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3/4분기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운수업이 소폭 증가하고, 도·소매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은 감소, 숙박·음식점업은 보합 수준을 보였다.

---

5) AI 반도체 시장 규모(억 달러, Gartner) : (2023^{e}) 513 → (2024^{e}) 638 → (2025^{e}) 771 → (2026^{e}) 924 → (2027^{e}) 1,116
HBM 시장(억 달러, Gartner) : (2023^{e}) 20.1 → (2024^{e}) 33.2 → (2025^{e}) 49.8
전체 D램에서 DDR5 비중 전망(OMDIA) : (2023.3/4분기) 16% → (4/4분기) 20% → (2024.1/4분기) 27%

6) 10월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5% 증가(2021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하였다.(Counterpoint Research) 또한 업계에 따르면 중국 광군절(10.31~11.12) 중 화웨이와 샤오미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각각 66%, 28% 증가하였다.

7) 셀트리온은 8월 17일 이사회 승인을 통해 셀트리온헬스케어와의 흡수합병 계약을 체결하였다. 연말에 합병이 완료되면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재고를 이용하여 수요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 물량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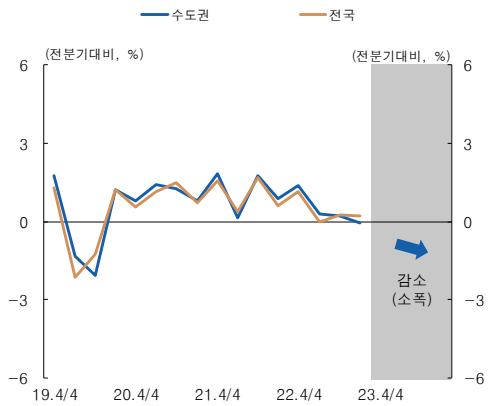
8) 고정거래가격 전망(달러): (D램, 8Gb) 2023.3/4분기 1.31 → 4/4분기 1.35 → 2024.1/4분기 1.39, (낸드, 128Gb) 2023.3/4분기 3.82 → 4/4분기 3.85 → 2024.1/4분기 3.97(한국반도체산업협회)

9) 업계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19년 이후 누적된 스마트폰 교체 수요와 중국 모바일 시장 수요 회복이 기대되며, 이러한 시장 상황 개선이 스마트폰 제조사 간 하드웨어 경쟁(스마트폰 내 반도체 탑재량 증가)으로 이어질 경우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10) 업계에 따르면 2023년 연간 실적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역대 최대 실적으로 추가 공장 증설 없이는 지속적 생산 확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1) 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2024년 1월부터 아이패드용 OLED 패널의 조기 생산이 예정되어 있다.

서비스업 지역경기전망지수[1)2)]



주: 1) 전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운수업은 해운 화물물동량[12)] 및 항공 화물 및 여객부문 모두 개선세[13)]를 나타내면서 전분기보다 소폭 증가하였다.

도·소매업은 대용량 절약형 물품 중심으로 온라인 매출이 증가[14)]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온화한 기온으로 이너웨어 등 잡화 판매가 저조하여 오프라인 매출이 줄면서[15)] 감소하였다. 부동산업은 주택매매가격은 소폭 상승[16)]하였으나 거래량이 크게 줄어드는 등[17)]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 금융·보험업은 회사채 발행금리가 높게 유지되면서 장기 회사채보다는 은행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을 선호하여 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잔액이 증가한[18)] 반면,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 거래대금이 크게 감소[19)]하여, 전체적으로는 감소하였다.

숙박·음식점업은 높은 외식물가[20)]에 따른 외식수요 감소 등으로 음식점업[21)]을 중심으로 보합 수준을 나타내었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4/4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운수업은 겨울 휴가철 수요에 힘입어 해외여행 회복세가 가속화되고, 수출입 및 물동량 증가 등으로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소매업과 금융·보험업은 전분기보다는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은 건설경기 침체 및 PF 대출 관련 리스크 등으로 부진한 모습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숙박·음식업도 고금리 장기화 및 높은 체감물가 등 소비심리 여력 악화 등으로 회복이 더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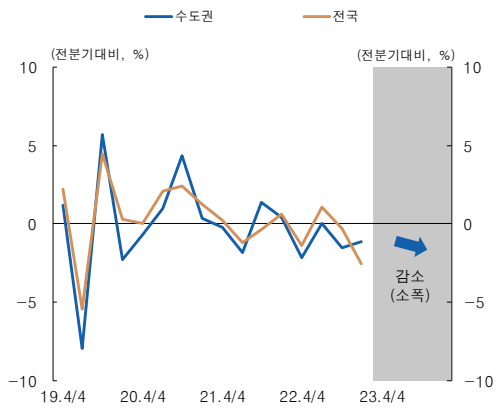
12) 10월 중 인천 및 평택·당진항의 화물물동량은 전년동월대비 4.5% 증가하여 3/4분기(+2.6%)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13) 10~11월 중 인천공항의 화물물동량(월평균)은 전년동기대비 2.7% 증가하였으며, 인천공항의 여객수는 전분기대비 1.0% 증가하였다.
14) 10월 중 온라인 유통업체의 매출은 전년동월대비 12.6% 증가하였으며, 전체 매출액에서 가장 큰 비중(25.5%)을 차지하는 식품에서 23.4% 증가하였다.
15) 10월 중 수도권 대형판매점(백화점 및 대형마트) 판매액지수는 전년동월대비 0.3% 감소하여, 3/4분기 증가(+4.0%)에서 감소로 전환하였다.
16) 10~11월 중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은 전분기(월평균) 대비 0.7% 상승하여, 3/4분기(+0.5%)의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17) 10월 중 수도권 주택매매거래량은 전분기(월평균) 대비 12.9% 감소하며, 3/4분기(-2.0%)보다 감소폭이 증가하였다.
18) 10월 중 예금은행(은행신탁 포함)의 기업대출 잔액은 전분기(월평균 잔액)대비 1.5% 증가하며 3/4분기(+2.0%) 증가세를 이어갔다.
19) 10~11월 중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전분기(월평균)대비 각각 25.3%, 40.4% 감소하였으며, 채권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도 전분기(월평균) 대비 11.1% 감소하였다.
20) 10~11월 중 수도권 음식서비스 물가는 전년동기대비 4.8% 상승하며, 3/4분기(+5.7%)에 이어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21) 외식산업 경기동향지수(전망)는 4/4분기 83.85로 3/4분기(87.31) 보다 하락하여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3) 수 요

민간소비 소폭 감소

4/4분기 중 민간소비는 서비스 소비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재화 소비가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는 3/4분기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매판매액지수[1)2)]



주: 1) 전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민간소비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권역별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재화 소비는 감소하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내구재는 가전[22] 및 승용차를 중심으로 감소하였고, 준내구재는 의복·신발 등의 부진이 이어지며 감소하였다. 비내구재는 평년보다 따뜻하였던 가을 날씨[23]로 연료 판매[24]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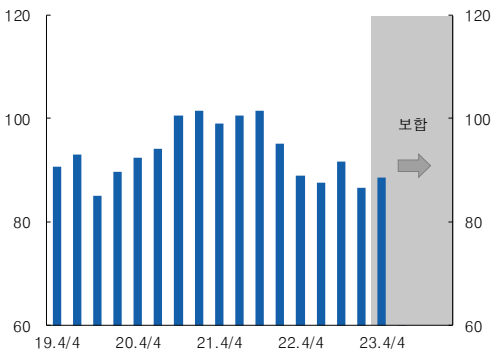
서비스 소비의 경우 정보통신업을 중심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교육서비스업 및 운수·창고업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전분기보다 소폭 증가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민간소비는 외부 활동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및 소비심리 악화[25] 등으로 재화·서비스 소비가 모두 보합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설비투자 보합

4/4분기 중 설비투자는 3/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소매업이 소폭 증가한 반면 반도체, 운수업이 소폭 감소하였고 그 외 업종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4/4분기 설비투자실행BSI(10월 및 11월 실적 평균)는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설비투자실행BSI[1)]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설비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막대 그래프는 10월 및 11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도소매업은 백화점이 오프라인 상권 경쟁력

22) 10~11월 중 수도권의 가전 카드사용액(농협·신한·하나카드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0.4% 감소하였다.
23) '2023년 가을철(9-11월) 기후분석 결과'(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가을철 전국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1.0℃ 높은 15.1℃로 역대 3위(1973~2023년 중)의 따뜻한 날씨를 기록하였다
24) 10~11월 중 수도권의 연료판매 카드사용액(농협·신한·하나카드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8.1% 감소하였다.
25) 10~11월 중 경기, 인천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CCSI)는 각각 97.1, 94.5로 전분기(월평균) 대비 3.9p, 4.2p 하락하였다.

강화를 위해 점포 리모델링을 진행[26]하며 설비투자가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반도체는 글로벌 수요 약세 및 가격 하락에 따른 공급업체들의 수익성 악화와 감산 기조가 지속되며 전분기보다 소폭 감소[27]하였다. 운수업에서는 일부 기업이 전분기에 벌크선 추가 인수와 노후차량 교체 등[28]을 완료함에 따라 전분기 대비 감소하였다.

디스플레이는 경쟁기업들의 중소형 OLED 시장 진입[29] 및 자동차 등 새로운 수요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분기 수준의 설비투자를 유지하였다. 그 외 자동차, 철강, 의약품 등의 설비투자도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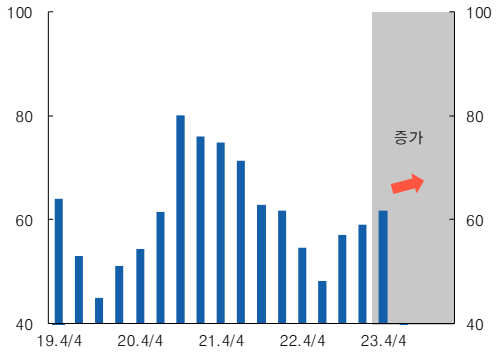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설비투자는 4/4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도체는 불확실한 수요 회복으로 인해 금년 중 지연되었던 설비투자가 부분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주로 선단 공정 전환 및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증가[30]할 전망이다. 자동차도 향후 국내 친환경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기차 중심의 투자[31]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디스플레이는 전분기 수준의 설비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 증가

4/4분기 중 건설투자는 3/4분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간부문은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착공면적이 늘어나면서[32] 증가하였다. 공공부문은 선행지표인 신규수주가 늘어나면서[33] 증가하였다.

건설업 업황BSI[1)]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건설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막대 그래프는 10월 및 11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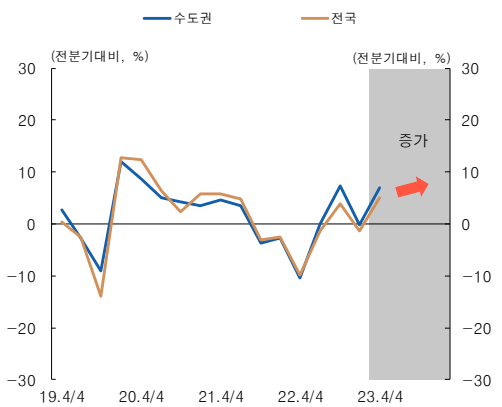
26) 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중동점(12월 초), 신세계백화점 강남점(내년 초 개장 목표)과 경기점, 롯데백화점 수원점(10년만의 대규모 리뉴얼)은 점포 리모델링을 준비 및 진행 중이다.
27)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액(전월대비, 관세청): 2023.10월 -12.6% → 11월 +2.8% → 12월(10일까지 잠정치) +13.3%
28) 3/4분기 중 종합해운물류 기업인 HMM은 벌크운송으로의 사업 확장과 다각화를 위해 벌크 선단 확장 등을 추진하였으며, 고속버스 운송 기업인 동양고속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차령(11년)이 만료된 버스를 교체하였다.
29) 중국 디스플레이패널 기업들은 OLED 중소형 패널에 집중 투자하면서 2025년부터 한국의 생산능력을 추월(2025년 중소형 OLED 생산능력 : 한국 1,174만㎡, 중국 1,212만㎡)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30) SK하이닉스는 2024년 설비투자(CapEx)로 약 10조원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2023.11.9) 이는 올해 설비투자 추정치(6~7조원)보다 3~4조원 많은 수준으로 주로 HBM 설비 증설, DDR5, LPDDR5 등의 생산 설비에 집중될 예정이다. 한편 삼성전자도 2024년 HBM 생산량을 올해보다 2.5배 가량 늘릴 계획으로, HBM 생산 설비 증설을 위해 삼성디스플레이 충남 천안 사업장 일부 건물과 설비를 지난달(2023.11.1) 매입했다.
31)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은 2024~2025년 본격적인 투자를 확대(현대차 : 2023년 10.5조원 → 2024년 12.3조원, 기아차 : 2023년 6.0조원 → 20224년 6.9조원)할 계획이며(2023.3/4분기 CEO Investor Day), 최근 주요 완성차 업체들(테슬라, GM, 포드 등)이 전기차 신차 출시 및 배터리 공장 투자의 속도 조절을 시사한 것과 다르게 전기차 관련 투자 연기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2023.11.13)
32) 10월 중 수도권의 건물 착공면적(전년동기대비)은 27.5% 감소하여 3/4분기(-50.7%) 대비 감소세가 축소되었다.
33) 10월 중 수도권 토목건설 건설수주액(전년동기대비)은 19.4% 증가하여 3/4분기(+9.7%) 대비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건설투자는 4/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간부문은 미분양 주택 규모가 꾸준히 줄어들고[34] 있지만 부동산PF 부실 우려 등으로 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부문은 2024년 SOC 예산 소폭 증가[35]에도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증가

4/4분기 중 수출(일평균)은 전분기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의약품이 증가한 반면 철강은 감소하였다.

수출(일평균)[1]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수출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선 그래프는 10월 및 11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반도체 수출은 수급 개선으로 인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전환과 고사양 제품에 대한 높은 수요에 따른 수출 물량 확대[36]의 영향으로 증가하였다. 자동차는 북미, 유럽 등 주요 시장의 대기 수요와 국내 친환경차 및 SUV에 대한 선호 지속[37]으로 전분기보다 증가하였다. 디스플레이도 공급 과잉 해소와 함께 스마트폰 신제품 등 중소형 OLED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 소폭 증가하였다. 의약품은 백신 및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수출 증가로 증가 전환하였다.

반면 철강[38]의 경우 수출 판매단가의 하락과 수출 중량의 감소로 인해 전분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수출은 4/4분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도체는 서버 시장의 신규 CPU 출시에 따른 교체 투자 수요[39], 범용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상승에 따른 구매 심리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디스플레이는 국내 기업들의 기술 우위, IT기기 OLED 전환 가속화, 모바일 수요 회복 등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자동차는 주요 수출시장인 북미지역[40]의 누적된 금리인상 영향에 따른 성장세 둔화, 대기 수요 해소, 전분기 고실적에 따른 역기저효

34) 10월 중 수도권 미분양주택(전년동기대비)은 3.7% 감소하여 3/4분기 말(-1.8%) 대비 감소세가 확대되었다.
35) 정부 SOC 예산은 2023년 25.0조원에서 2024년 26.1조원으로 1.1조원(+4.6%) 증가하였다.
36) 반도체 수출물량은 2023년 8월 이후 전년동기대비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2023.10월 전년동기대비 +1.1%, 11월 +12.4%) (한국무역통계진흥원)
37) 10월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SUV가 차지하는 비중은 74.2%(167,134대)이며 친환경차 비중은 23.6%(53,174대)이다.(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38) 10월 중 인천지역 철강판 수출중량은 3/4분기(월평균)에 비해 10.4% 감소하였고, 수출단가는 9.2% 감소하였다.(한국무역통계진흥원)
39) 업계에 따르면 서버 시장에서 최근 3년간 신규 CPU 출시가 없었으나(일반적인 서버 교체 주기는 4~6년) 최근 Emerald Rapids(인텔)의 연말 출시 발표 이후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업체들의 CapEx 전망이 상향되었다.
40) 자동차 수출액 북미지역 비중: 2022년 연간 비중 48.3% → 2023년 1~10월 중 54.4%(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과 등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철강, 석유화학·정제 등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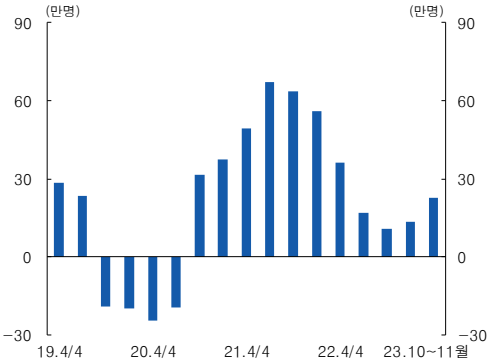
(4) 고 용

취업자수 증가폭 확대

10~11월 중 취업자수(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22.6만명 증가하여 3/4분기(13.3만명)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지역별로는 인천은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서울 및 경기의 증가폭은 확대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41]의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나 서비스업 및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의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건설업[42]은 증가로 전환되었다. 한편 종사상 지위별로는 비임금근로자의 증가폭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축소되었으나, 임금근로자는 상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취업자수 증가[1)]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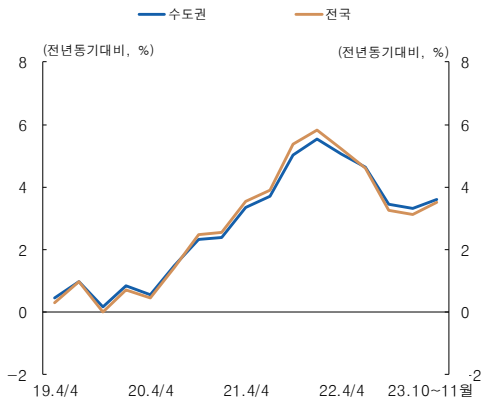
(5)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

소비자물가 상승폭 확대

10~11월 중 소비자물가(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3.6% 상승하여 3/4분기(3.3%)보다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이는 전기·가스·수도 가격의 상승폭이 축소[43]되었지만, 석유류 가격의 하락세가 둔화[44]되었고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폭은 크게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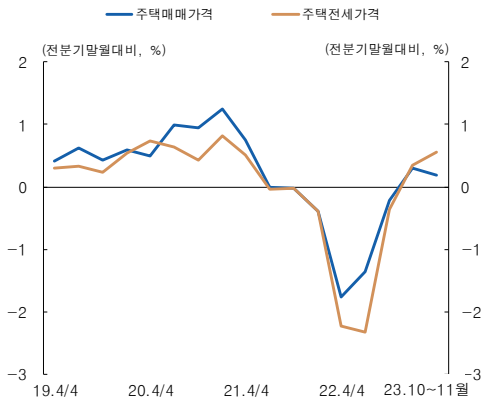
41) 10~11월 중 제조업의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6.8만명 감소하여 3/4분기(-4.3만명, 전년동기대비) 대비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42) 10~11월 중 건설업의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3.4만명 증가하여 3/4분기(-0.7만명)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었다.
43) 10~11월 중 수도권 전기·가스·수도 가격(월평균, 전년동기대비 기준)은 상승폭이 축소(3/4분기 +21.1% → 10~11월 +9.9%)되었다.
44) 10~11월 중 두바이유 가격(기간중 평균, 전년동기대비 기준)은 하락폭이 축소(3/4분기 -11.5% → 10~11월 -1.5%)되었고, 수도권 석유류 가격(월평균, 전년동기대비 기준)도 하락폭이 축소(3/4분기 -13.6% → 10~11월 -2.2%)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1)]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1)2)]



주: 1) 전분기말월대비 월평균 기준
2) 한국부동산원의 표본재설계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가격조사일이 월 중에서 월 말로 변경
자료: 한국부동산원

주택매매가격 상승폭 축소 및 전세가격 상승폭 확대

10~11월 중 주택매매가격(월평균)은 전분기말 월대비 0.19% 상승하여 3/4분기(0.29%)보다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이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일부 중단[45)]의 영향으로 수요 증가[46)]가 정체된 데 주로 기인한다.

전세가격(월평균)은 전분기말월대비 0.56% 상승하여 3/4분기(0.35%)보다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이는 주택매매가격 상승폭 축소에도 정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수요가 증가[47)]한 데 주로 기인한다.

45) 정부는 주거안정망 확충 정책으로 2023.1.30일부터 시행된 특례보금자리론(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DSR 적용 배제) 중 소득요건이 없었던 일반형 상품 공급을 9.27일부터 중단하였다.
46) 10~11월 중 수도권 주택의 매매수급동향지수(100미만시 공급>수요, 월평균 기준)는 89.1로 3/4분기(7월 88.0 → 8월 89.6 → 9월 90.7) 대비 상승세가 정체되었다.(한국부동산원)
47) 10~11월 중 수도권 주택의 전세수급동향지수(100미만시 공급>수요, 월평균 기준)는 93.5로 3/4분기(7월 88.7→ 8월 91.0 → 9월 93.2)보다 개선되었다.(한국부동산원)

2. 동남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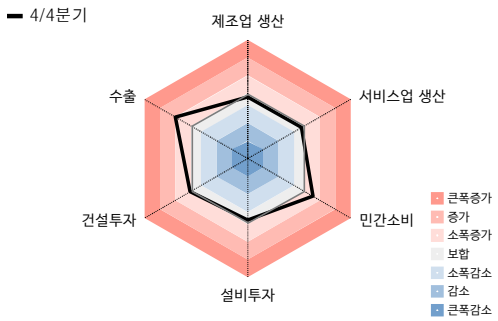
(1) 개 황

동남권 경기 보합

2023년 4/4분기 중 동남권 경기는 전분기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산의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모두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수요 측면에서는 전분기에 비해 수출이 증가하고 소비와 건설투자가 소폭 증가하였으며 설비투자는 보합을 나타내었다.

10~11월 중 취업자수 증가폭은 전분기보다 축소되었고 10~11월 중 소비자물가도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주택매매가격은 약보합세를 지속하였으며, 전세가격은 상승 전환하였다.

경기 레이더[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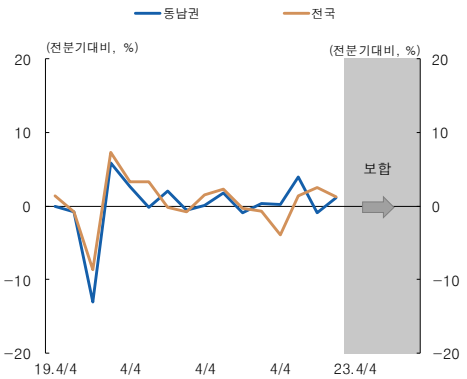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하여 평가한 것임

(2) 생 산

제조업 생산 보합

4/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은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및 부품이 증가한 반면 석유화학은 감소하였다. 조선, 철강, 금속가공, 석유정제 및 기계장비 등 여타 업종들은 대체로 보합 수준을 나타내었다.

제조업 지역경기전망지수[1)2)]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자동차 및 부품은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면서 전분기대비 증가하였다. 반면 석유화학은 중국 생산설비 증설[48]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과잉 상황에서 일부 업체의 정기보수[49]도 이루어지며 전분기대비 감소하였다.

조선은 기 수주물량의 건조가 진행되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고 철강, 금속가공은 전

48) 2020~2024년 중 글로벌 에틸렌 생산설비는 중국 25백만톤 등 총 45백만톤이 증설될 예정이다.(S&P Global)
49) 한화솔루션, 롯데케미칼 등이 4/4분기 중 정기보수를 진행하고 있다.

방산업인 자동차 생산이 증가한 반면 건설경기는 위축되면서 보합을 나타내었다. 석유정제의 경우 중국의 석유제품 수요가 다소 개선되었으나 미국 등 주요국의 회복지연 등으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기계장비도 국내 설비투자 회복이 지연되면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모니터링 결과 동남권의 향후 제조업 생산은 4/4분기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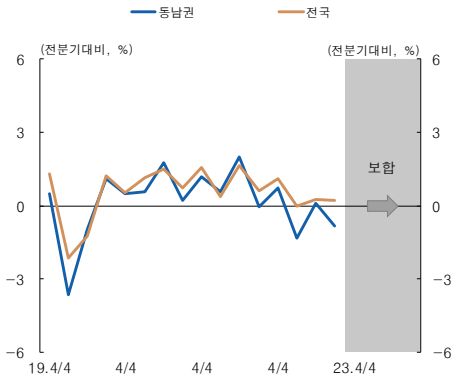
기계장비는 수출을 중심으로 수주가 늘어나면서 향후 소폭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철강 및 금속가공은 건설경기 부진이 심화되면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정제는 글로벌 수요둔화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석유화학도 글로벌 공급과잉이 지속되면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자동차 및 부품은 북미를 중심으로 견조한 수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고금리 지속, 전기차 수요 둔화 등에 따른 내수 위축으로 보합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조선은 그간 축적된 수주잔량[50]을 바탕으로 대형 업체들의 생산 호조가 지속되면서 이번 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다만, 인력난으로 인한 생산 차질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서비스업 생산 보합

4/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숙박·음식점업과 운수업, 도소매업은 소폭 증가한 반면 부동산업은 감소하였다.

서비스업 지역경기전망지수[1)2)]



주: 1) 전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업종별로 살펴보면 숙박·음식점업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 대규모 지역축제 개최[51] 등에 힘입어 소폭 증가하였으며, 운수업은 부산항 컨테이너 처리량이 늘면서[52] 전분기보다 소폭 증가하였다. 도·소매업의 경우 도매업은 보합으로 나타났으나 소매업은 재화 소비가 늘며 소폭 증가하였다. 한편 부동산업은 주택거래가 전분기보다 크게 줄면서[53] 감소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4/4분기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운수업은 글로벌 교역 개선에 따른 부산항 물

50) 12월 초 국내 조선업체의 수주잔량은 4천만 CGT로 2011년 11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Clarkson)
51) 4/4분기 중 경남고성세계공룡엑스포(9.22~10.29일), 부산국제영화제(10.4~13일), 부산불꽃축제(11.4일) 등 대규모 지역축제가 개최되었으며, 이에 따라 10월 관광 관련 소비가 3/4분기(월평균) 대비 8.6% 증가하였다.(한국관광 데이터랩)
52) 10월 중 부산항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전년동월대비 3.5% 증가하였다.(부산항만공사)
53) 동남권 주택거래량(한국부동산원)은 10월 중 11,088호로 3/4분기(월평균) 대비 11.9% 감소하였고, 주택 미분양 물량(국토교통부)은 2/4분기(전분기대비) 3.6%, 3/4분기 13.3% 감소하였으나 10월 중에는 3/4분기(월평균) 대비 0.1%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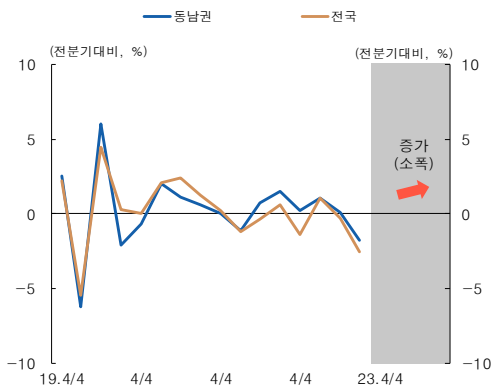
동량 확대로 현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반면 도·소매업은 재화 소비가 줄면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숙박·음식점업도 지역축제 종료 등의 영향으로 지역내 방문객수가 줄면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은 주택거래 회복이 지연되면서 이번 분기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3) 수 요

민간소비 소폭 증가

4/4분기 중 민간소비는 재화와 서비스 소비 모두 전분기보다 다소 개선되면서 소폭 증가하였다.

소매판매액지수[1)2)]



주: 1) 전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민간소비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권역별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재화 소비를 형태별로 살펴보면, 내구재는 3/4분기에 자동차 판매가 큰 폭으로 감소했던 기저효과[54)]로 전분기대비 증가하였다. 비내구재는 여행 수요 확대 등으로 차량용 연료 지출이 늘면서[55)] 전분기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며, 준내구재는 의복 판매가 늘어나면서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56)]

서비스 소비는 대규모 지역축제 개최 등에 따라 숙박, 예술·스포츠·여가 등 관련 소비[57)]를 중심으로 전분기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민간소비는 4/4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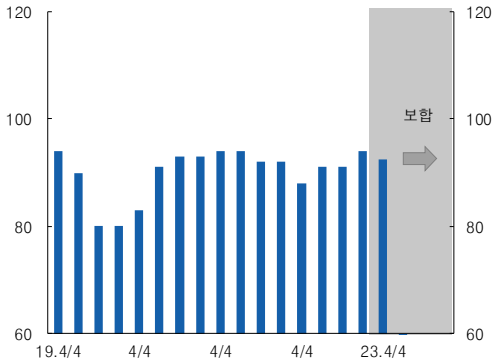
재화 소비의 경우 고금리 등으로 소비심리[58)]가 다소 위축된 가운데 자동차 판매 기저효과도 사라지면서 전분기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소비는 숙박·음식점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다소 약화될 전망이다.

설비투자 보합

4/4분기 중 설비투자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철강·비철금속은 소폭 증가한 반면 석유정제·석유화학 및 자동차는 소폭 감소하였다. 조선과 기계장비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4) 동남권의 자동차판매 카드사용액(농협·신한·하나카드, 자체 계절조정계열 기준)은 6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의 영향으로 3/4분기에 전기대비 14.0% 감소하였으나 10월에는 3/4분기(월평균) 대비 9.6% 증가하였다.
55) 10월~11월 중 부산·경남지역 고속도로 통행량은 3/4분기 대비 2.7% 증가하였으며, 10월 동남권의 연료판매 카드사용액은 3/4분기 대비 10.2% 증가하였다.
56) 10월 중 동남권의 의복 카드사용액은 3/4분기 대비 5.9% 증가하였다.
57) 10월 중 동남권의 숙박, 레저 및 문화취미 카드사용액은 3/4분기 대비 각각 1.7%, 3.0% 및 0.8% 증가하였다.
58) 10~11월 부산, 울산 및 경남의 평균 소비지출전망지수는 각각 108.0, 109.0 및 112.5로 3/4분기 대비 각각 2.3p, 2.3p 및 1.8p 하락하였다.(한국은행)

설비투자실행 BSI[1)]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설비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막대 그래프는 10월 및 11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철강·비철금속[59]은 신규공장 건설 및 라인 증설 등으로 설비투자가 증가하였다. 반면 석유정제·석유화학[60] 및 자동차[61]는 일부 생산설비 증설 및 신사업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수요 부진에 따라 전반적으로는 신규투자를 축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선과 기계장비는 설비 교체 및 유지 보수 관련 투자가 지난 분기 수준에서 지속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설비투자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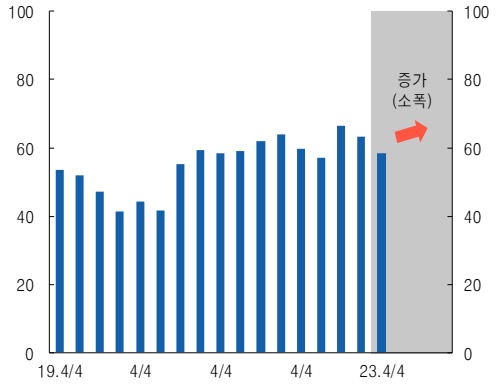
자동차[62]와 기계장비[63], 전기장비[64]는 신사업 관련 투자가 지속되면서 소폭 증가가 예상된다. 석유정제·석유화학[65] 및 철강·비철금속도 업황 개선 기대에 힘입어 설비투자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의 경우 일부 대형 업체들이 투자확대 계획[66]을 가지고 있으나 중소형 업체들의 최근 자금난[67]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는 이번 분기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 소폭 증가

4/4분기 중 건설투자는 전분기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간부문은 주택가격 하락 기대가 잦아들면서[68]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착공실적[69]이 전분기보다 확대되었다. 반면 공공부문은 지방자치단체의 SOC 예산집행액[70] 축소 등으로 지난 분기에 비해 감소하였다.

59) 고려아연은 1조원 규모의 이차전지 소재(전해동박, 전구체, 황산니켈) 생산을 위해 울산 올인원 니켈 제련소(4.3만톤/년) 건설에 착공(11월)하였다.
60) SK지오센트릭은 1.8조원 규모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종합 단지(울산 ARC, Advanced Recycling Cluster) 조성에 착공(11월)하였고, 롯데이네오스화학도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초산비닐 3공장(25만톤/년) 증설을 진행 중이다. 한편, S-OIL은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 생산 공장 구축을 위한 9.3조원 규모의 설비투자(샤힌프로젝트)를 전분기에 이어 진행 중이다.
61) 현대차는 전기차 생산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울산 전기차 공장(20만대/년) 설립에 착공(11월)하였다.
62) 현대차는 지난 5월 공개한 전기차 진단 및 관리를 위한 '울산하이테크센터'를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할 계획이며, KG 모빌리티는 2024년 중 창원 배터리팩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63)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신규 사업 수주 및 생산성 개선을 위해 4/4분기 1.2천억원을 포함한 약 9천억원 규모의 설비투자 계획을 발표하였다.
64) 삼성 SDI는 2024년 1/4분기에 울산에 신형 배터리 및 양극재 생산 시설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다.
65) 롯데케미칼은 화학적 재활용 페터(C-rPET) 생산라인 구축을 위해 울산2공장에 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66) 한화오션(舊대우조선해양)은 방산 및 친환경 연료기술 개발과 해상풍력발전 설비 마련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다.
67) 현장리포트「부산지역 주요 조선업체 자금난 현황」을 참조하기 바란다.
68) 동남권 주택매매가격은 금년 들어 하락폭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었다.(전분기말월대비, 2023.1/4분기 -3.4% → 2/4분기 -1.1% → 3/4분기 -0.2% → 10월 -0.04%)
69) 10월 중 동남권 건물착공면적은 139만m^2로 전년동기대비 17.3% 증가하였다. 용도별로는 주거용이 74.7% 증가하였고, 상업용 및 공업용은 각각 58.5%, 7.3% 감소하였다. 주체별로는 민간이 19.1% 증가한 반면, 공공은 11.7% 감소하였다.(국토교통부)
70) 10~11월 중 동남권 지방자치단체의 SOC 관련 예산집행액(월평균)은 5,34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4.4% 감소하였다.(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건설업 업황BSI[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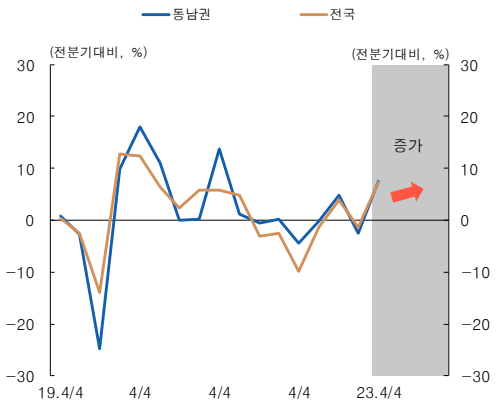
주: 1)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건설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막대 그래프는 10월 및 11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모니터링 결과 향후 건설투자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지표인 건설수주[71)]를 보면 공공부문은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이나 민간부문 수주가 크게 줄어 전체 수주액은 감소하였다. 건축허가도 주거용 및 공업용 건축을 중심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증가

4/4분기 중 수출(일평균)은 전분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72)] 품목별로 보면 선박, 자동차 및 부품, 기계(수송기계 제외), 석유제품 등 주요 수출품목들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다만, 석유화학제품은 소폭 감소하였고 철강금속제품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수출(일평균)[1)]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수출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선 그래프는 10월 및 11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선박은 2021년 호황기에 수주한 물량의 인도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자동차 및 부품[73)]은 최대 수출시장인 북미에서 친환경차 및 SUV 수요가 늘면서 증가하였으며, 기계[74)]는 주요 선진국의 친환경·신성장 부문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서 증가로 전환하였다. 석유제품도 수출단가가 상승[75)]함에 따

71) 10월 중 동남권 건설수주액은 1.6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8.7% 감소하였다. 부문별로는 민간부문이 1.2조원으로 33.7% 감소했으며, 공공부문도 0.4조원으로 0.7% 감소하였다.(국토교통부)
72) 10~11월 중 동남권의 일평균 수출액(5.6억달러)은 전분기(5.1억달러)대비 8.4% 증가하였다.(한국무역협회)
73) 10~11월 중 동남권 자동차 및 부품(MTI 741, 742) 수출액은 전분기대비 14.6% 증가(자동차 +16.5%, 자동차부품 +4.6%)하였다.
74) 10~11월 중 동남권 기계(수송기계 제외) 수출액은 기초산업기계(MTI 71)와 기타기계류(MTI 79)를 중심으로 전분기대비 3.7% 증가하였다.

라 증가 전환하였다. 반면, 석유화학제품은 글로벌 공급과잉 상황에서 주요 수출국인 중국 내 자급률이 상승함에 따라 소폭 감소[76]하였다. 철강금속제품은 미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요 회복이 지연되면서 지난 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77]

모니터링 결과 향후 수출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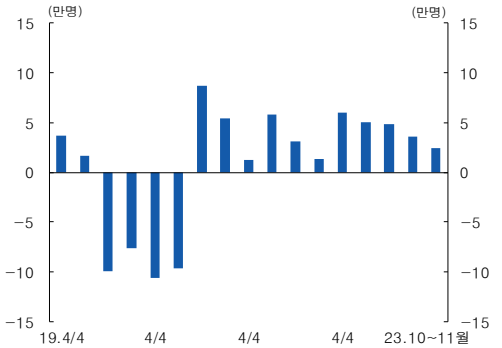
선박은 대형업체들의 인도 예정물량이 4/4분기에 비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78] 자동차 및 부품, 기계도 글로벌 수요가 개선되면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며 석유제품도 신흥국을 중심으로 수입 수요가 늘어나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화학제품과 철강금속제품은 중국 경기 둔화흐름이 이어지면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4) 고 용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

10~11월 중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2.4만명 증가하여 전분기(+3.6만명)보다 증가폭이 다소 축소되었다. 업종별로 보면 농림어업 및 제조업은 감소폭이 줄었으나 서비스업은 증가폭이 축소되고 건설업은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는 상용근로자(+8.1만명)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자영업자(-3.6만명) 등 비임금근로자는 전분기보다 감소폭이 커졌다. 지역별로 보면 울산의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 분기에 비해 확대된 반면, 부산과 경남은 축소되었다.

취업자수 증감[1)]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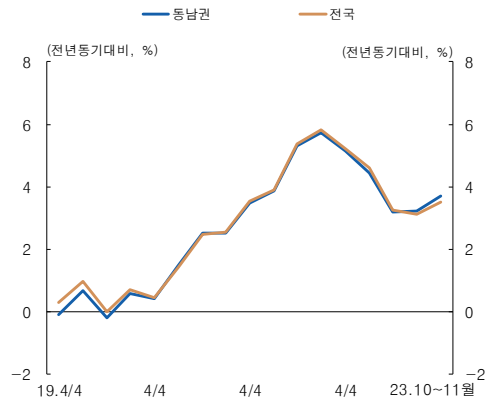
75) 10~11월 중 두바이유(87.0)는 전분기(86.7) 대비 0.4% 상승하였으며, 동남권 석유제품(MTI 133)의 수출단가는 전분기대비 6.8% 상승하였다.
76) 10~11월 중 동남권 석유화학제품(MTI 21)은 중국 수출(-21.6%)을 중심으로 18.1% 감소하였다.
77) 10~11월 중 동남권 철강금속제품(MTI 6)의 미국 수출은 전분기대비 1.0% 감소하였고 중국 수출은 2.6% 증가하였다.
78) 동남권 소재 대형 조선사는 2024년 1/4분기 중 359.7만CGT를 인도할 예정으로, 4/4분기(130.2만CGT)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5)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

소비자물가 상승폭 확대

10~11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3.7%로 전분기(+3.2%)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이는 전기·가스·수도 가격과 외식 등 개인서비스 가격 오름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고 국제유가 하락폭이 축소된 데 기인한다.[79]

소비자물가 상승률[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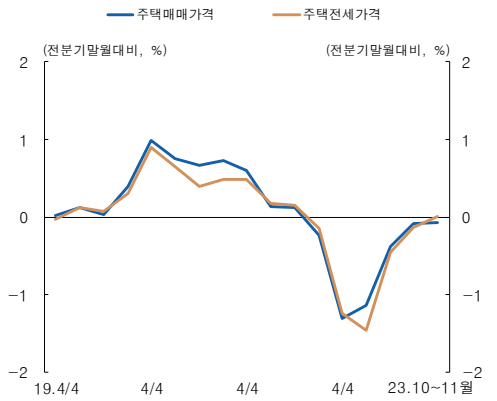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주택매매가격 약보합세 지속 및 전세가격 상승 전환

10~11월 중 주택매매가격은 전분기말월대비 0.07% 낮아져 3/4분기(-0.08%) 수준의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전세가격의 경우 전분기말월대비 0.003% 오르며 지난 2022년 2/4분기 이후 처음으로 상승 전환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주택매매가격은 부산, 울산, 경남 모두 약보합세를 지속하였으며, 전세가격의 경우 부산은 하락폭이 줄고 울산과 경남은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수급지수를 보면[80], 매매수급지수의 경우 지난 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전세수급지수는 소폭 상승하였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1]



주: 1) 전분기말월대비 월평균 기준
2) 한국부동산원의 표본재설계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가격조사일이 월 중에서 월 말로 변경
자료: 한국부동산원

79)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3/4분기 중 -11.5%에서 10~11월 중 -1.5%로 하락폭이 축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석유류 가격도 3/4분기에 비해 하락폭이 축소(-14.4% → -2.8%)되었다.
80) 주택 매매수급지수(3/4분기 87.1)는 10월과 11월 각각 87.6, 86.5, 주택 전세수급지수(3/4분기 88.9)는 각각 90.4, 90.3으로 나타났다.

3. 충청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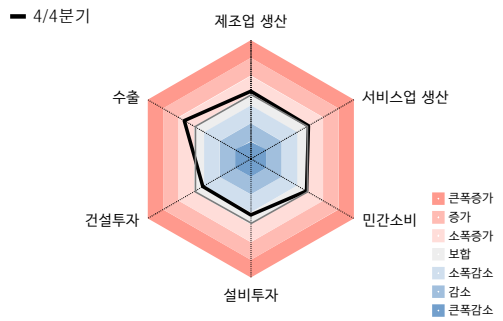
(1) 개 황

충청권 경기 소폭 개선

2023년 4/4분기 중 충청권 경기는 전분기보다 소폭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산 동향을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은 모두 소폭 증가하였다. 수요 측면에서는 수출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는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10~11월 중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폭이 3/4분기보다 축소되었다. 10~11월 중 소비자물가는 3/4분기보다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며,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도 상승세가 다소 가팔라졌다.

경기 레이더[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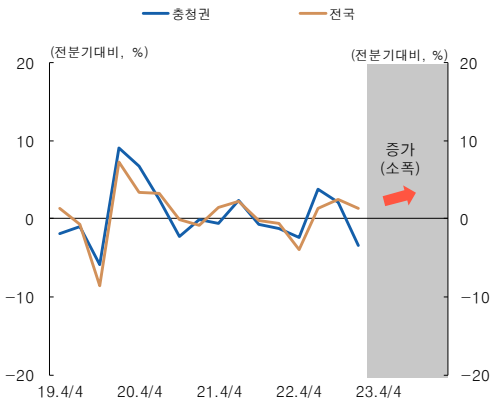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하여 평가한 것임

(2) 생 산

제조업 생산 소폭 증가

4/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은 전분기보다 소폭 증가하였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및 부품, 철강 및 석유화학 등 대부분 주력업종의 생산이 증가하였다. 다만, 전기장비는 다소 감소하였다.

제조업 지역경기전망지수[1)2)]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반도체는 주요 생산기업들의 감산으로 재고조정 효과가 가시화되고 전방산업의 업황이 개선[81)]되면서 소폭 증가하였다. 디스플레이도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 회복[82)] 및 신제품 조기 출시[83)]에 힘입어 소폭 증가하였다. 자동차 및 부품은 전기차 수요 감소[84)]에도 불구하고 신차 수출[85)]이 증가하면서 소폭 증가하였다. 철

81) 삼성전자의 경우 올해 5월 이후 반도체 재고 수준이 고점을 통과하였으며, 고객의 재고수준 정상화, 신제품 출시 및 IT기기 고용량 추세 등으로 수요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2023년 3/4분기 실적발표)
82) 올해 글로벌 모바일기기 출하량은 전년동기대비 1/4분기 -19.6%, 2/4분기 -6.3%, 3/4분기 +4.2% 및 4/4분기[e] +6.9%로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다.(TrendForce)
83) 삼성전자는 2022년 및 2023년 2월에 갤럭시S 시리즈 신제품을 공개한 바 있다. 차기제품(갤럭시S24 시리즈) 공개는 내년 1월 중에 실시하고 생산 일정도 이에 맞춰 앞당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84) 국내 완성차 업체의 10월 중 전기차 내수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29.9%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체 내수판매량 증가율(-1.4%)을 하회하였다.

강은 중국의 감산[86]으로 공급과잉이 다소 해소되면서 소폭 증가하였다. 석유화학은 에틸렌-나프타 스프레드 확대[87], 중국의 경기 부양 등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전기장비는 유럽지역 보조금 축소[88]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둔화[89]되면서 소폭 감소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4/4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도체는 재고과잉 해소 및 고부가가치 제품 출하 확대 등으로 업황이 개선[90]되면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디스플레이는 OLED를 채택하는 IT 기기가 늘어나면서[91]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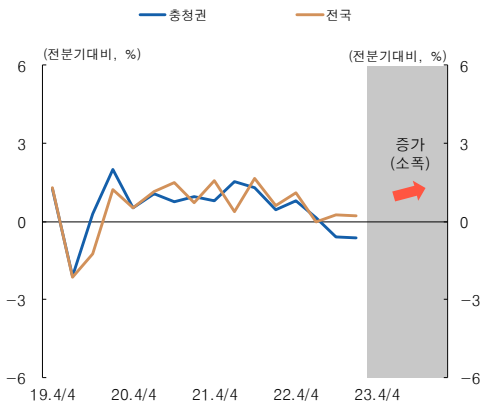
자동차 및 부품의 경우 신차 생산을 위한 설비조정으로 생산이 일부 중단[92]되면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석유화학은 구조적 공급 과잉[93]으로 수급 부담이 지속되면서 전분기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은 중국업체들이 경기 부양에 따라 증산기조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는 데다 국내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큰 폭의 수요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94] 보합세가 예상된다.

서비스업 생산 소폭 증가

4/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소폭 증가하였다. 업종별로는 운수업, 부동산업 및 숙박·음식점업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도소매업은 소폭 감소하였다.

서비스업 지역경기전망지수[1)2)]



주: 1) 전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85) 올해 4월 새로운 모델이 출시된 소나타(소나타 디 엣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생산)의 경우, 4/4분기 월평균 수출량(10월 기준)은 12,777대로 전분기(7,738대)를 상회하였다.
86) 4/4분기(10월 1일~12월 10일 기준) 중국의 조강(crude steel) 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3.7% 감소하였다.(CEIC)
87) 에틸렌-나프타 스프레드(달러/톤)는 3/4분기 141달러에서 4/4분기(10~12월) 203달러로 확대되었다.(산업통상자원부, 2023.12.13일 기준)
88) 영국은 2011년부터 최대 £1,500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해왔으나 2023년 중 이를 폐지하였으며, 유럽 내 전기차 최대 소비국인 독일도 €4만 이하 및 €4만~€6만 전기차의 보조금을 각각 €1,500(€6,000 → €4,500), €2,000(€5,000 → €3,000)만큼 축소하였다.
89) 이차전지 시장조사업체는 2023년 글로벌 전기차 등록대수 전망을 1.48천만대(8월)에서 1.37천만대(11월)로 7.2% 하향조정하였다.(SNE리서치)
90) 내년 1/4분기 중 글로벌 반도체 생산업체의 초과재고가 전년동기대비 71% 감소하여 해소될 것으로 전망(Gartner)되며, 기존 제품(DDR4)보다 가격이 높은 차세대 D램(DDR5)을 중심으로 생산 확대가 예상된다.(Omdia)
91) 노트북, 태블릿PC 및 VR기기 등 스마트폰 이외의 제품으로 OLED 탑재가 확산되어 소형 OLED패널 시장에서 非스마트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날 전망(2023년 4/4분기 18.9% → 2024년 1/4분기 20.9%)이다.(Omdia)
92)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생산을 위한 공사로 인해 2023년 12월 31일부터 2024년 2월 13일까지 아산공장의 일부 가동중단 예정을 공시하였다.
93) 글로벌 에틸렌 생산 설비 증설 규모가 2023년 987만톤, 2024년 529만톤으로 전망된다.(대신증권)
94) 2024년 우리나라 철강 수요는 2023년 대비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세계 수요 증가율(+1.9%)을 하회한다.(세계철강협회, 한국철강협회)

운수업은 여행객수 증가[95] 및 해운 물동량 회복[96]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부동산업은 매매거래량이 다소 늘어나면서[97] 소폭 증가하였다. 숙박·음식점업은 대규모 지역행사 개최[98] 및 지역 내 숙박시설 이용객 증가[99]로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도소매업은 고물가 및 고금리로 구매력이 약화되면서 백화점을 중심[100]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4/4분기보다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운수업은 항공 여객 중심의 수송 증가세[101]가 이어지고 상품교역이 회복[102]되면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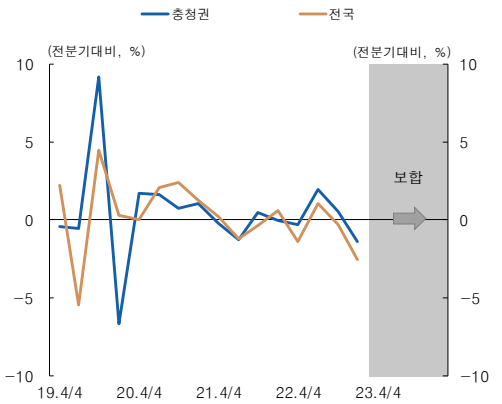
반면, 부동산업은 고금리 지속 등으로 소폭 감소[103]할 것으로 보인다. 도소매업은 소비 회복이 지연되면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외식물가 상승, 국내 여행의 가격 경쟁력 축소 등으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3) 수 요

민간소비 보합

4/4분기 중 민간소비는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재화 소비가 전분기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나 서비스 소비가 소폭 감소하였다.

소매판매액지수[1)2)]



주: 1) 전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민간소비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권역별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재화 형태별로 살펴보면 내구재는 자동차[104] 및 가전제품 등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비

95) 10~11월 중 청주국제공항의 항공기 여객 인원은 월평균 35.6만명으로 3/4분기(33.2만명, 월평균)에 비해 7.5% 증가하였으며(한국공항공사), 동 기간 중 철도 이용 인원은 일평균 8.8만명으로 3/4분기(7.6만명)에 비해 15.4% 증가하였다.(코레일)
96) 충청권 항만(평택당진항, 대산항, 태안항, 보령항)의 화물 수송량(월평균)은 3/4분기 중 1,819톤에서 10월 중 1,908톤으로 4.9% 증가하였다.
97) 충청권 주택매매 거래건수는 10월 6,953건으로 3/4분기 월평균 거래량(6,698건)을 상회하였다.(한국부동산원)
98) 9월 23일부터 10월 9일까지 '2023대백제전'이 충청남도 공주시와 부여군에서 개최되었으며 목표 관람객 150만명을 크게 상회한 320만명이 축제에 방문하였다.(백제문화재단)
99) 10~11월 중 월평균 충청지역 숙박 관광객 수는 전년동기대비 0.7% 증가한 약 601만명으로 추산된다.(한국관광 데이터랩)
100) 충청지역 대형 소매판매점(백화점, 대형마트 및 대형소매점) 중 백화점 판매액(경상금액 기준)이 10월 중 1,68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3% 감소하였다.(통계청)
101) 코로나19 확산 이후 2020년 3월부터 중단되었던 청주국제공항의 국제선 정기 운항이 올해부터 재개되었으며, 취항노선도 점차 증가(2023년 2월 베트남 다낭, 4월 태국 돈무앙, 6월 일본 오사카 및 베트남 나트랑, 7월 중국 연길)하였다.(한국공항공사)
102) 세계교역 신장률은 IT경기 개선, 주요국 신성장산업 및 공급망 재배치 관련 투자 증가 등으로 점차 회복하여 올해 0.8%에서 내년 3.4%로 개선될 전망이다.(한국은행)
103) 대전세종충남 지역 및 충북 지역의 주택가격전망CSI는 올해 9월 이후 전월대비 하락세(각각 115→110→102 및 110→108→102)를 이어가고 있다.(한국은행)
104) 10~11월 중 충청권 자동차 등록대수는 16,468대로 전년동기(월평균 14,617대) 및 전분기말월(15,231대)에 비해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내구재는 높아진 외식물가의 영향으로 대체재 성격의 식자재 위주로 구매가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준내구재는 고물가에 따른 여가소비가 줄어들며 스포츠용품 등을 중심으로 전분기보다 소폭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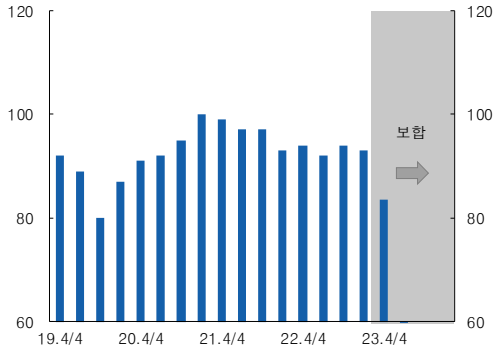
서비스 소비는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민간소비는 4/4분기보다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고금리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에 따른 소비여력 감소로 재화 소비가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비스 소비도 여행 관련 소비 위축이 이어지며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 보합

4/4분기 중 설비투자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및 부품, 디스플레이 및 전기장비는 증가한 반면, 반도체 및 철강은 소폭 감소하였다. 석유화학은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설비투자실행BSI[1)]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설비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막대 그래프는 10월 및 11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자동차는 대형 SUV 전기차 모델의 신규 생산을 위한 투자[105)]로 증가하였다. 디스플레이는 수요처 확대[106)]에 대비한 투자 진행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이차전지 등 전기장비도 정부의 제도적 지원[107)]과 함께 예정된 설비투자[108)]가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반도체는 감산 기조에 따라 신규 투자가 제한[109)]되면서 소폭 감소하였다. 철강은 업황 부진이 이어지면서 소폭 감소하였다.

석유화학은 업황 부진으로 주력 제품 관련 대규모 설비 증설이 없어 전분기와 비슷하였다.

105)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는 소나타, 그랜저 및 아이오닉6 등 세단 차량 위주로 생산되고 있으며 내년 대형 SUV 전기차 출시를 위한 설비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106) 삼성디스플레이는 IT OLED 및 플렉서블 제품 대응 중심으로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시설 투자 규모는 3/4분기 0.7조원에서 4/4분기(예정) 1.5조원으로 점차 확대되었다.(삼성전자 3/4분기 실적발표)
107) 정부가 「위험물안전관리법」 특례 조항을 신설(12월)함에 따라 소방 인허가 기간이 단축(3~6개월)되면서 설비투자가 촉진될 전망이다. 충청북도의 경우 특례 조항 신설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소방청 및 주요 업체 등과 이차전지 제조공정 특수성을 감안한 안정성 확보 방안을 수립해 왔다.
108) LG에너지솔루션은 2022년 12월 충북 오창에 원통형 배터리 생산라인 신·증설을 위해 2026년까지 4조원 규모의 투자계획(2022년 12월)과 2024년 말까지 마더공장(제품 개발과 신공정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시험 생산 및 검증을 담당하는 공장) 설립을 위한 6,0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4월)하였으며, 4/4분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109)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반도체 설비투자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의 올해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1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조선비즈)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설비투자는 4/4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디스플레이는 해외 경쟁기업의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110]에 대응하여 지역 내 기업의 차세대 투자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반도체의 경우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고성능 메모리반도체 생산을 위한 투자가 진행[111]되어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철강은 탄소배출 저감 관련 투자 등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자동차는 신차 생산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면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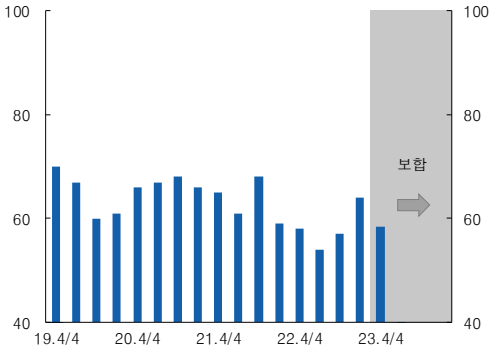
석유화학은 글로벌 공급과잉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증설이 금년 중 완료[112]됨에 따라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이차전지 등 전기장비의 경우 글로벌 수요 둔화를 해외부문 생산 축소[113] 등으로 대응하고 있어 지역 내 투자는 계획대로 진행되면서 보합세를 보일 전망이다.

건설투자 보합

4/4분기 중 건설투자는 전분기와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간부문은 집중호우[114] 등 전분기 착공면적 감소 요인이 해소[115]되면서 소폭 증가하였다. 공공부문은 지자체의 SOC 예산 집행액 축소[116]로 소폭 감소하였다.

건설업 업황BSI[1)]



주: 1)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건설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막대 그래프는 10월 및 11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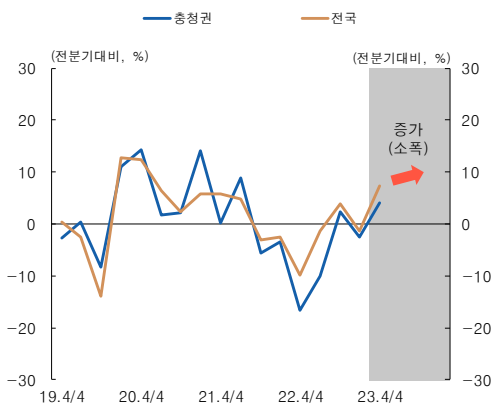
모니터링 결과 향후 건설투자는 4/4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민간부문의 경우 미분양주택 해소 둔화[117] 및 고금리 지속에 따른 건설기업 자금조달 부담 증가 등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은 내년 정부 SOC 예산 증액[118] 등의 긍정적 요인과 최근 건설수주액 감소[119] 등의 부정적 요인이 혼재하면서 전분기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110)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BOE)은 IT용 OLED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8.6세대 설비 투자 계획(약 11조원)을 발표하였다.
111) 삼성전자는 AI 시장 확대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제품(HBM) 생산 능력을 천안공장을 중심으로 내년 말까지 최소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며, SK하이닉스도 HBM 선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청주공장을 증설 중이다.
112) LG화학은 충남 대산에 10만톤 규모의 고생산성 태양광 봉지재용 수지(POE) 공장 증설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LG화학 3/4분기 실적 발표)
113) LG에너지솔루션 및 SK온 등 지역 내 이차전지 기업들은 해외 현지 공장의 생산 규모 축소 및 일부 직원 해고 등을 통해 최근 전기차 수요 감소에 대응하고 있다.
114) 3/4분기 충청지역 강수일수는 41.3일로 최근 5년 평균(37.4일)을 상회하였다.(기상청)
115) 10월 충청지역 건물착공면적은 전년동기대비 3.6% 증가하였으며, 주거용은 -10.3%, 비주거용은 +5.5%를 기록하였다.
116) 충청권 지자체의 올해 4/4분기(10~11월 기준) SOC 예산 집행 규모는 작년 4/4분기에 비해 크게 감소(-46.3%)하였다.(지방재정365)
117) 충청권 미분양주택 수는 1월(16,058호)을 정점으로 점차 해소되고 있으나, 그 속도는 8월부터 둔화(8월 -9.1%→9월 -7.9%, 전월대비)되고 있다.
118) 8월에 발표된 정부의 2024년 SOC 예산은 26.1조원으로 올해(25.0조원) 대비 4.6% 증가하였다.
119) 충청권 공공부문 10월 건설수주액은 4,776억원으로 2022년 4/4분기 6,369억원(월평균)보다 25.0% 감소하였다.(통계청)

수출 소폭 증가

4/4분기 중 수출(일평균)은 전분기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석유화학은 증가하였다. 철강은 소폭 감소한 가운데 자동차 및 부품과 전기장비는 보합 수준을 나타내었다.

수출(일평균)[1)]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수출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선 그래프는 10월 및 11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반도체는 제품 가격이 반등[120)]하면서 소폭 증가하였다. 디스플레이는 고가형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OLED 공급이 증가하여 소폭 증가하였다. 석유화학은 중국 경기부양 정책 등으로 제품가격이 상승[121)]하면서 소폭 증가하였다.

철강은 전반적인 업황 부진과 미국 수출 쿼터 소진으로 인해 소폭 감소하였다.

자동차 및 부품은 전미자동차노조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및 해외 현지 부품업체와의 경쟁 등으로 보합세를 보였다. 전기장비는 가격 하락[122)]에도 불구하고 전분기 큰 폭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123)]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수출은 4/4분기 대비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반도체는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 증가 및 전반적인 업황 개선에 힘입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디스플레이는 OLED 수요처 확대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은 완만한 세계 경제 회복세[124)]와 내년도 대미 수출 쿼터 적용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및 부품은 지역 내 완성차업체의 생산 중단 등으로 인해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석유화학은 글로벌 공급과잉 해소가 지연되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차전지 등 전기장비는 글로벌 전기자동차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누적 수주물량이 많아 전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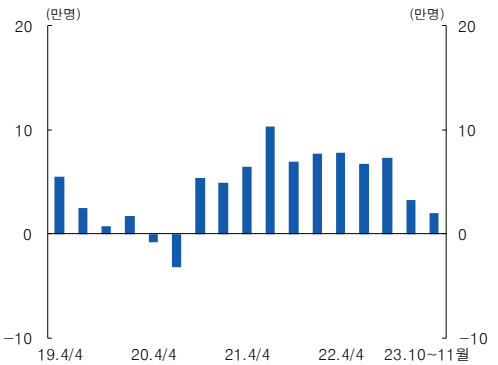
120) 2023년 중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9월 이후 반등(2023년 9월 $1.30→10월 $1.50→11월 $1.55, DDR4 8Gb 고정가격 기준)하였다.(TrendForce)
121) 2023년 중 에틸렌 가격(톤)은 6월 16일 $715를 기록한 이후 7월 $740, 8월 $802, 9월 $842.5, 10월 $870 및 11월 $851로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다.(산업통상자원부)
122) 10월 중 이차전지 수출단가(kg당, 수출액/수출물량)는 $37.5로 전월($40.8)에 비해 8.1% 하락하였다. 이는 3/4분기 중 일부 회복세를 보이던 수출단가(전월대비 증가율, 6월 -12.1%→7월 +1.4%→8월 +4.0%→9월 +0.4%)가 다시 내림세로 돌아선 것이다.
123) 10월 들어 충청지역 이차전지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감소세(8월 -48.9% →9월 -47.9%→10월 -35.2%, 증가율)가 크게 둔화되었다.
124) 세계경제는 올해 2.9%, 내년 2.8%로 완만한 성장흐름을 보일 전망이다.(한국은행)

(4) 고 용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

10~11월 중 취업자수(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2.1만명 늘어나 3/4분기(+3.3만명)보다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이 감소 전환되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의 증가폭이 축소되고 일용근로자의 감소폭이 확대되는 등 임금근로자의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며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지역별로는 대전은 감소 전환되었고 세종·충북·충남은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취업자수 증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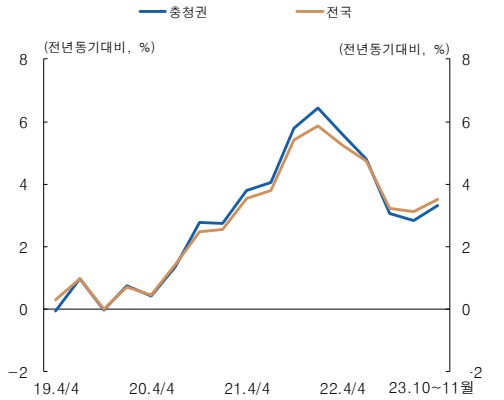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5)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

소비자물가 상승폭 확대

10~11월 중 소비자물가(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3.3% 상승하여 3/4분기(+2.8%)보다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상품 물가는 기상 여건의 악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상승, 석유류 가격의 하락세 둔화 등으로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반면, 서비스 물가는 집세와 개인서비스 요금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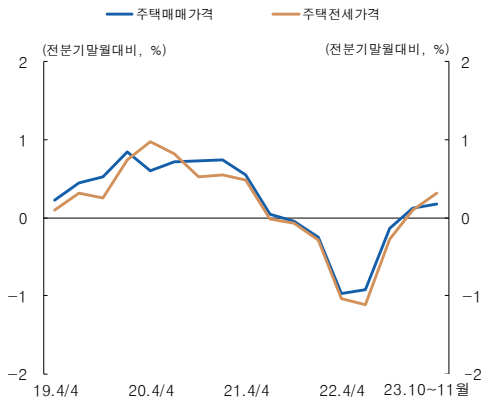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2) 2021.1월부터 세종 포함
자료: 통계청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상승폭 확대

10~11월 중 주택매매가격(월평균)은 전분기말월대비 0.18% 상승하며 3/4분기(+0.12%)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지역별로는 충북(+0.32%), 대전(+0.20%), 충남(+0.07%)이 상승폭이 확대된 반면, 세종(+0.07%)은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전세가격(월평균)도 전분기말월대비 0.31% 상승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0.59%), 세종(+0.89%), 충북(+0.26%)은 상승폭이 확대되었고 충남(+0.13%)도 상승 전환하였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1)2)]



주: 1) 전분기말월대비 월평균 기준
2) 한국부동산원의 표본재설계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가격조사일이 월 중에서 월 말로 변경
자료: 한국부동산원

4. 호남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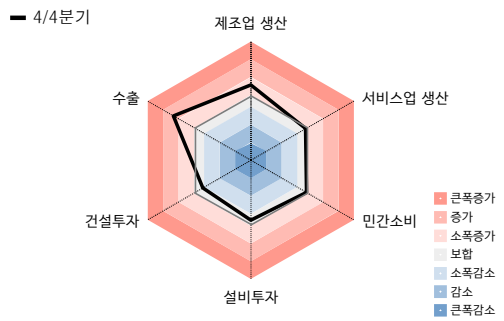
(1) 개 황

호남권 경기 소폭 개선

4/4분기 중 호남권 경기는 전분기보다 소폭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산 동향을 보면 제조업이 전분기보다 소폭 증가하였고 서비스업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수요 측면에서는 수출은 증가하였으며 민간소비,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10~11월 중 취업자수는 3/4분기에 비해 전년동기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10~11월 중 소비자물가는 3/4분기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되었고, 10~11월 중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상승 전환하였다.

경기 레이더[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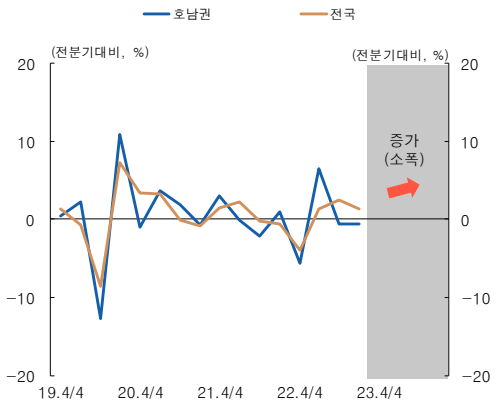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하여 평가한 것임

(2) 생 산

제조업 생산 소폭 증가

4/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은 3/4분기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과 조선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자부품은 소폭 감소하였다. 석유정제, 자동차 및 철강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제조업 지역경기전망지수[1)2)]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석유화학은 업황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으나 수출 회복에 따라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소폭 증가하였다. 조선은 수주량이 양호한 상황에서 인력 수급 상황이 개선[125]되며 생산량이 소폭 증가하였다.

전자부품은 3/4분기 신규 스마트폰 출시 효과가 줄어들면서 소폭 감소하였다.

125) 현대삼호중공업 등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결과, 최근 해외인력 유입으로 인력 수급 상황이 개선된 데다 국내인력 유입도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석유정제는 정제마진이 축소[126]되었으나 중국의 석유제품 수출 감소[127] 등으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자동차는 SUV 판매 호조가 지속되고 있으나 일부 업체의 공장 가동 중단[128] 등으로 전분기와 비슷한 생산량을 기록하였다. 철강은 자동차와 조선이 양호한 업황을 지속하고 있으나 건설, 기계 등의 수요가 부진함에 따라 보합세를 보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4/4분기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자부품은 반도체 공장의 국내 이전[129], IT 경기 회복 등으로 생산물량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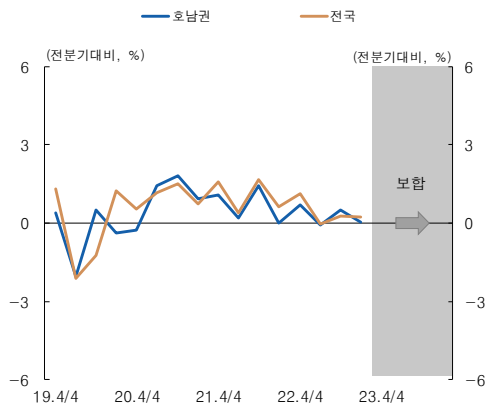
석유정제는 경기둔화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동절기 기온이 비교적 온난할 것으로 예상[130]되어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석유화학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하기 위해 공장 가동률을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사업 구조조정[131]을 진행함에 따라 생산량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는 내수 부진, 글로벌 수요 둔화 등으로 생산량이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철강은 중국의 부동산 등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 대외 수요 둔화 등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은 그간 충분한 수주잔량이 확보[132]되어 전분기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업 생산 보합

4/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3/4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이 증가하였고 운수업도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도소매업은 감소하였고 부동산업과 숙박·음식점업도 소폭 감소하였다.

서비스업 지역경기전망지수[1)2)]



주: 1) 전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은 전국체전 개최[133] 등으로 방문자[134]가 늘어나면서 증가하였다.

126) 석유정제업체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싱가포르 복합 정제마진은 9월 16.9달러/배럴에서 11월 셋째 주 기준 6.4달러/배럴로 하락하였다.
127) 중국의 석유제품 수출이 자국 내 수요, 제한적인 수출 쿼터, 낮아진 수익성 등으로 감소하였다.
128)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11월 7일 협력업체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다가 9일에 정상 조업을 재개하였다.
129) 오디텍은 중국 남경공장의 국내(전라북도 완주군) 이전을 2022년 말부터 추진하여 왔으며 2023년 4/4분기 중 관련 설비투자를 완료할 예정이다.
130) 기상청,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등이 엘니뇨로 따뜻한 겨울 날씨를 전망하면서 난방유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131) 석유화학업체는 저수익 범용 제품의 비중을 축소하고 이차전지, 태양광 소재 등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을 확대하는 등 사업 개편을 추진 중이다.
132) 호남권에 위치한 국내 대형 조선사(현대삼호중공업, 대한조선)의 11월 말 수주잔량은 707만CGT이며, 2023년 중 총 182만CGT가 인도될 예정이다.
133)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10월 13일에서 19일까지,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11월 3일에서 8일까지 전라남도 목포 등지에서 개최되었다.
134) 10월 중 호남권 방문자 수(외지인 기준)는 2,759만명으로 3/4분기(2,590만명, 월평균) 대비 6.5% 증가하였다.

운수업은 수상운송이 전분기 수준을 유지[135]하였으나 항공운송 물동량이 증가하고[136] 항공운항편수[137]가 늘어나면서 전분기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부동산업은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138]이 소폭 늘어났으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139] 소폭 감소하였다. 숙박·음식점업은 주류가격 인상 등으로 가격부담이 높아지면서 소폭 감소하였다.

도소매업은 소비심리 회복이 지연[140]되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141]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4/4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숙박·음식점업은 주세 인하[142]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운수업도 수출 물동량 회복이 지속되며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소매업 역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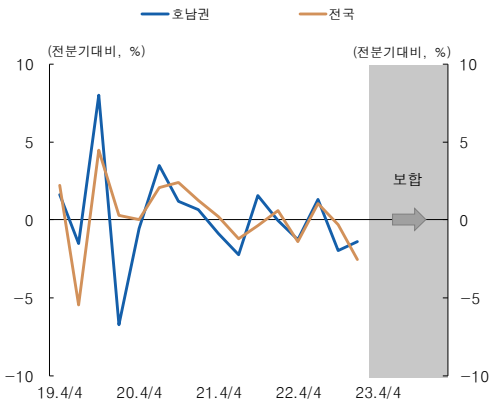
부동산업은 주택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대출금리로 인하여 4/4분기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3) 수 요

민간소비 보합

4/4분기 중 민간소비는 재화 소비가 증가하였으나 서비스 소비가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는 3/4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소매판매액지수[1)2)]



주: 1) 전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민간소비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권역별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재화 소비를 품목별로 보면 내구재는 가전[143]이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판매가 SUV 신형 모델 출시[144]와 코리아세일페스타[145]로 늘어나면서 증가[146]하였다. 준내구재는 명품 소비가 위

135) 10월 중 광양항의 컨테이너 처리 실적은 16.4만TEU로 3/4분기(16.4만TEU, 월평균)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136) 10월 중 호남권 공항(광주, 여수, 무안, 군산)의 운송화물은 1,668톤으로 3/4분기(1,218톤, 월평균) 대비 36.9% 증가하였다.
137) 10월 중 호남권 공항(광주, 여수, 무안, 군산)의 운항편수는 1,995편으로 3/4분기(1,702편, 월평균) 대비 17.2% 증가하였다.
138) 10월 중 호남권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은 16,433호로 3/4분기(16,110호, 월평균) 대비 2.0% 증가하였다.
139) 4/4분기 호남권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4,916호로 3/4분기(5,935호) 대비 17.2% 감소하였다.
140) 11월 중 광주·전남의 소비자심리지수는 89.3으로 3/4분기 말 대비 3.2p 하락하였다.
141) 지역 내 백화점 모니터링 결과, 방문객 수는 증가한 반면 명품 등 고가 상품군의 침체가 지속되어 객단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42) 기획재정부는 12월 1일 주세 기준판매율을 도입하여 국내 주류에 적용되는 주세를 인하하는 방침을 입법예고하였다.
143) 10~11월 중 호남권 가전제품 카드사용액(농협·신한·하나카드 기준)은 3/4분기(월평균) 대비 13.0%, 전년동기대비(월평균) 대비 3.9% 감소하였다.
144) 기아자동차는 올해 11월 중 '더 뉴 카니발 페이스리프트'를 출시하였다.
145) 11월 11일부터 시작된 코리아세일 페스타에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총 31종의 차량(현대자동차 23종, 기아자동차 8종)을 할인 판매하였다.

축되었으나 레저용품 소비가 늘어나면서 증가하였다. 비내구재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차량용 연료[147]를 중심으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업태별로 보면 대형마트 매출은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연말 할인행사가 늘어나며 증가하였으나 백화점 매출은 명품을 중심으로, 슈퍼마켓 매출은 주류를 중심으로 전분기에 비해 감소하였다.[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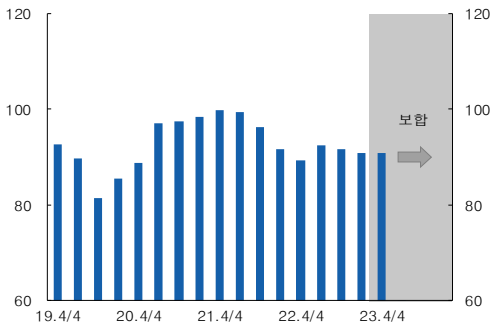
서비스 소비의 경우 골프장 등 레저시설 이용[149]은 늘었으나 연휴 기간 중 해외여행 증가, 주류가격 인상 등으로 숙박·음식점업이 감소하면서 전분기보다 소폭 감소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민간소비는 세제혜택 확대, IT경기 회복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4/4분기보다 재화 소비를 중심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고금리 지속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해외여행 증가 등이 증가폭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 보합

4/4분기 중 설비투자는 3/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업종별로 보면 석유정제, 석유화학, 철강 등 대부분의 업종이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설비투자실행BSI[1)]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설비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막대 그래프는 10월 및 11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석유정제, 석유화학 및 철강은 기존 신증설 투자 계획[150]에 따라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환경, 안전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투자[151]도 진행 중이다. 조선[152]은 수주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고 작업공간을 확대하는 등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는 일부 업체[153]가 전기차 생산을 위해 생산시설을 구축하였다.

146) 10~11월 중 호남권 내구재 카드사용액(농협·신한·하나카드 기준)은 3/4분기(월평균) 대비 30.0%, 전년동기대비(월평균) 0.1% 증가하였다.
147) 10월 호남권 휘발유 소비량은 84.7만배럴로 3/4분기(84.3만배럴, 월평균) 대비 0.4% 증가에 그쳤다.
148) 10월 중 호남권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전년동월대비 9.1% 감소하며 3/4분기(-10.6%)보다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며, 대형마트 판매액지수는 7.8% 증가하며 3/4분기(5.1%)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149) 10~11월 중 호남권 레저업소 카드사용액(농협·신한·하나카드 기준)은 3/4분기(월평균) 대비 6.3%, 전년동기대비(월평균) 0.6% 증가하였다.
150) LG화학은 화치단지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재구축을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4,404억원을 투자하여 연간 22만톤 규모로 ABS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포스코는 11월 29일 이차전지소재용 수산화리튬 공장과 고효율 전기강판 공장을 준공했다.
151) GS칼텍스는 온실가스 감축 및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130억원을 투자하여 5만톤 규모의 폐플라스틱 열분해 공장을 신설할 예정이다.
152) 현대삼호중공업은 2023년 중 3,161억원을 시설 투자할 예정인데 지난해 투자액(1,247억원) 대비 153.6% 증가한 금액이다.
153) 광주글로벌모터스는 2024년 하반기부터 전기차를 양산할 수 있도록 11월 4일부터 한 달간 전기차 시설물을 설치하고 설비 가동 준비에 들어갔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설비투자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동차[154]는 신차 생산을 위해 설비투자가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석유정제[155], 석유화학[156] 및 철강[157]은 신성장 동력 육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저탄소 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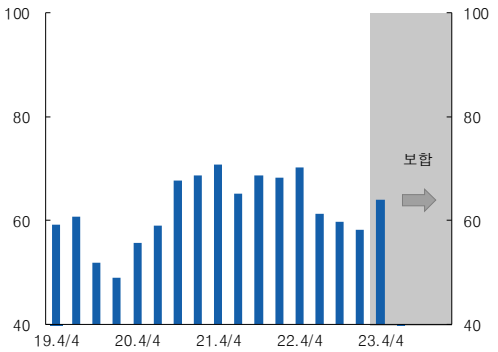
전자부품 등 여타 업종에서는 고금리 지속,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쟁력이 악화되는 가운데 대외경제의 불확실성도 증가함에 따라 당분간 노후화 설비 교체 등 유지 보수 수준으로 설비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 보합

4/4분기 중 건설투자는 민간부문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공공부문이 소폭 감소하면서 3/4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간부문은 주택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하고 미분양 주택이 감소[158]하면서 주거용을 중심으로 전분기보다 소폭 증가하였다. 공공부문은 SOC 예산집행액[159]이 감소하여 전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건설업 업황BSI[1)]



주: 1)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건설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막대 그래프는 10월 및 11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모니터링 결과 향후 건설투자는 4/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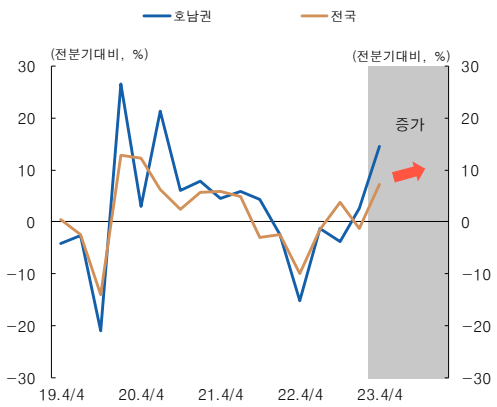
민간부문은 주택매매가격이 상승하면서 그동안 공사가 지연되었던 사업장들을 착공하며 소폭 증가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은 건설수주액이 줄어든[160] 영향으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154)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2024년 1월부터 전기차 EV5 생산을 위한 설비 공사를 할 예정이다.
155) GS칼텍스는 수소와 폐플라스틱 순환경제 등을 통해 탄소를 감축하고 저탄소 신사업을 발굴하는 등 녹색 전환 전략을 추진 중이다.
156) LG화학은 기존 석유화학 중심에서 벗어나 전지소재, 친환경, 신약 등 3대 신성장동력으로의 업종 전환 계획을 밝히며 동 사업의 매출 비중을 2022년 21%에서 2030년 57%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157) 포스코는 탄소중립 철강 생산을 위해 6천억원을 투자하여 광양제철소에 연산 250만톤 규모의 전기로를 신설할 예정이며 2024년 1월 착공해 2026년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158) 10월 말 호남권 미분양주택은 7,380호로 9월 말 7,539호에 비해 159호 감소하였다.
159) 10~11월 중 호남권 지방자치단체의 SOC 예산 집행액(월평균)은 3,889억원으로 3/4분기(4,084억원, 월평균) 대비 4.8% 감소하였다.
160) 10월 중 호남권 공공부문 건설수주액은 1,540억원으로 3/4분기(월평균) 1,719억원에 비해 10.4%, 전년동월대비 74.0% 감소하였다.

수출 증가

4/4분기 중 수출(일평균)은 3/4분기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제품, 석유화학, 철강 및 선박은 증가하였고 자동차도 소폭 증가하였으나 반도체는 감소하였다.

수출(일평균)[1)]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수출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선 그래프는 10월 및 11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석유제품은 정유사의 정기보수 기간 종료에 따른 가동률 상승 등으로 증가하였다. 석유화학은 미국, 인도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증가하였다. 철강은 수출단가 약세[161)]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강재를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되면서 증가하였다. 선박은 선가가 견조한 상승세[162)]를 유지하는 가운데 2021년 수주물량이 본격적으로 인도되면서 증가하였다. 자동차는 북미를 중심으로 SUV 수출 호조[163)]가 지속되면서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반도체는 스마트폰 부품을 중심으로 신규수주가 줄어들면서 감소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수출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선박은 인도예정물량[164)]이 늘어나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는 주요 수출시장의 반도체 수요 회복, 수급 상황 개선 등으로 생산물량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석유제품은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가 지속되면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석유화학은 글로벌 공급과잉 지속 등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는 미국 고금리 지속에 따른 구매력 감소, 전기차 경쟁 심화 등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도 중국 경제 회복 지연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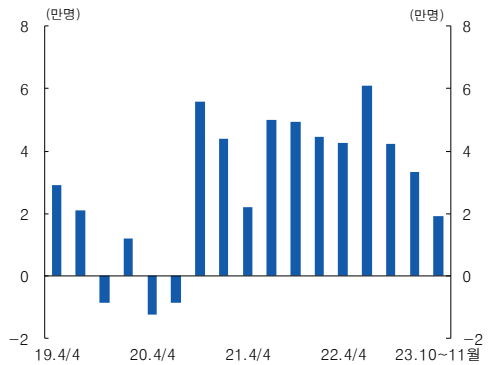
161) 10~11월 중 철강제품의 톤당 수출단가는 1,132달러로 3/4분기(1,177달러) 대비 3.8% 하락하였다.
162) 클락슨 선가지수는 2020년 말 125.6에서 2021년 말 153.6, 2022년 말 161.8, 2023년 말 177.1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163) 기아자동차의 10월 스포티지와 셀토스의 수출대수는 각각 10,134대 및 8,786대로 전년동기대비 22.4% 및 1.3% 증가하며 3/4분기(24.4% 및 –0.4%)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164) 2024년 1/4분기 호남권의 선박 인도예정물량은 계약일정상 56.9만CGT로 전분기(21.1만CGT) 대비 169.5% 늘어날 전망이다.

(4) 고 용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

10~11월 중 취업자수(월평균)는 전년동월대비 2.0만명 증가하여 3/4분기(3.3만명)보다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농림어업이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건설업과 서비스업 증가폭은 축소되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비임금근로자는 무급가족종사자 감소폭 확대에도 자영업자가 증가 전환하면서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감소로 전환하였고, 광주의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전북은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취업자수 증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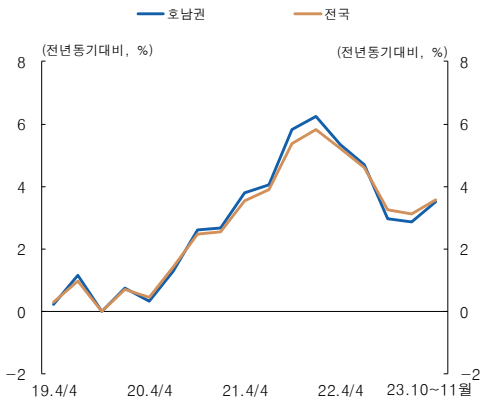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5)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

소비자물가 상승폭 확대

10~11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월평균)은 전년동기대비 3.5%로 3/4분기(2.9%)보다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상품가격은 국제유가 변동[165)]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 과실[166)]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가격의 높은 오름세 등으로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서비스 물가는 공공 및 개인서비스 모두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3/4분기 수준의 상승폭을 이어나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1)]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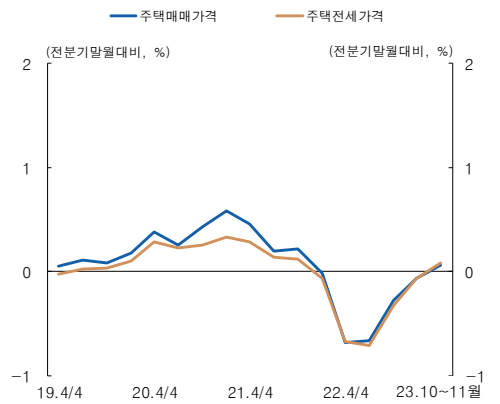
165) 10~11월 중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전년동기대비 1.5% 하락하여 3/4분기(-11.5%) 대비 하락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166) 10~11월 중 과실 가격은 전년동기대비 26.3% 상승하여 3/4분기(14.3%) 대비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 상승 전환

10~11월 중 주택매매가격(월평균)은 전분기말월 대비 0.06% 오르며 전분기(-0.06%)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하였다. 지역별로도 광주, 전남 및 전북 모두 상승 전환하였다.

10~11월 중 전세가격(월평균)도 전분기말월 대비 0.09% 올라 전분기(-0.07%)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하였으며, 지역별로도 광주, 전남 및 전북 모두 상승 전환하였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1)2)]



주: 1) 전분기말월대비 월평균 기준
2) 한국부동산원의 표본재설계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가격조사일이 월 중에서 월 말로 변경
자료: 한국부동산원

5. 대경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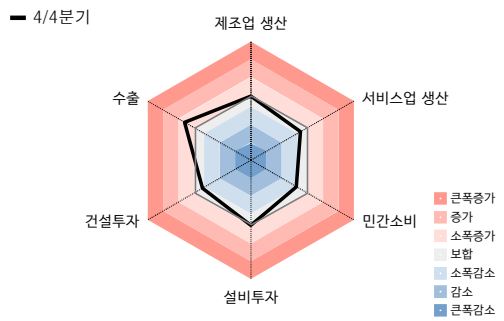
(1) 개 황

대경권 경기 보합

2023년 4/4분기 중 대경권 경기는 3/4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산 동향을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보합 수준을 나타내었다. 수요 측면에서는 민간소비가 소폭 감소하였으며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3/4분기 수준을 유지하였고 수출은 소폭 증가하였다.

10~11월 중 취업자수는 3/4분기에 비해 전년동기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소비자물가는 전분기보다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며 주택매매가격은 상승세가 유지되고 주택전세가격은 하락하였다.

경기 레이더[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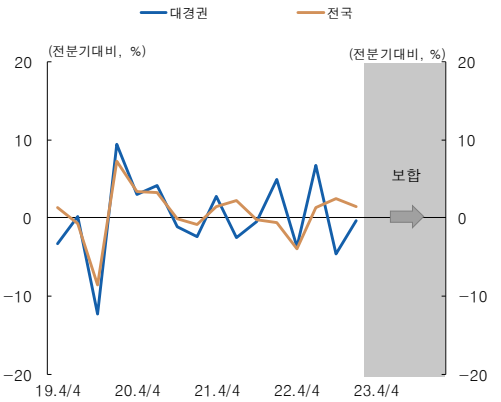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하여 평가한 것임

(2) 생 산

제조업 생산 보합

4/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은 3/4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디스플레이, 휴대폰 및 부품이 증가하였고 철강은 감소하였으며 기계장비, 자동차부품, 섬유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제조업 지역경기전망지수[1)2)]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디스플레이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공급이 확대[167]되면서 증가하였다. 휴대폰 및 부품은 신제품 출시 효과 이연[168]과 해외사업장 생산물량 증가로 부품 수출이 늘어나면서 증가하였다.

철강은 선박 등 주요 전방산업의 생산 증가세 둔화로 감소하였다.

167) LG디스플레이의 4/4분기 예상 출하면적은 전분기보다 18% 증가한 5,600만m^2이며, 구미사업장 P6공장에서 IT기기 및 차량용 LCD, E5공장에서 차량용 OLED 패널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68) 아이폰15는 3/4분기 출시 당시 공급망 운영 문제와 중국에서의 수요 감소로 판매가 저조하였으나, 4/4분기를 기점으로 주요 부품 공급사의 설비 증설, 공급망 다변화 및 중국의 자국산 스마트폰 수요 둔화에 힘입어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기계장비는 수출이 자동차 등 전방산업의 해외 투자 증가에 힘입어 증가하였으나 내수가 경기 불안으로 위축되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자동차부품은 완성차 판매 증가세가 지속[169]되는 가운데 친환경차 위주의 성장으로 내연기관용 부품 수요가 둔화되면서 보합 수준을 유지하였다. 섬유는 미국, 튀르키예 등 주요국에 대한 수출은 감소[170]하였으나 그 외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여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4/4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휴대폰 및 부품은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가 회복세로 전환하고 주요 신제품의 조기 출시도 예상[171]됨에 따라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디스플레이는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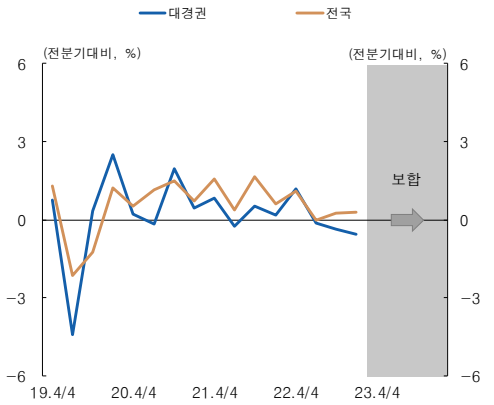
철강은 중국산 저가 철강재 수입과 엔저 영향으로, 섬유는 중국업체와의 가격 경쟁 심화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부품은 고금리 지속과 글로벌 수요 둔화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기계장비는 중국 후발 업체와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산업용 로봇 등 수요가 늘어나면서 보합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서비스업 생산 보합

4/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3/4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이 증가하였고 도소매업은 감소하였으며 운수업과 숙박·음식점업은 보합 수준이었다.

서비스업 지역경기전망지수[1)2)]



주: 1) 전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부동산업은 수급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주택거래량[172]이 늘어나면서 소폭 증가하였다.

도소매업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할인 폭을 확대한 가전, 가구 판매가 증가하였으나 음식료품, 의복 등의 수요 부진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운수업의 경우 항공 운송은 증가세가 지속[173]되었으나 육상 운송이 내수부진으로 감소하면

169) 2023년 10~11월 중 월평균 자동차 생산은 전분기보다 10.3% 증가(322,244대 → 355,585대), 수출은 12.6% 증가(209,228대 → 235,533대), 내수 판매는 14.0% 증가(109,927대 → 125,290대)하였다.(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170) 대미 수출은 대형·중견 유통사의 실적 부진으로 섬유사를 중심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대튀르키예 수출도 2023년 8월부터 시행된 섬유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인상(8% → 10%)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171) 2024년 전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보다 3%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삼성전자는 갤럭시S24 시리즈 목표 출하량을 전작보다 11% 이상 늘린 3,500만대로 설정하고 내년 1월 조기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172) 대구경북지역 주택거래량은 2023년 10월 8,411건으로 2023년 들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월평균 주택거래량: 2023.1/4분기 6,036건 → 2/4분기 7,971건 → 3/4분기 8,069건, 한국부동산원)

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숙박·음식점업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단체 행사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 증가로 지역 내 내국인 관광객 수가 감소[174]하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4/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운수업은 항공 운송에서는 국제선 실적의 순차적 회복[175]으로, 육상 운송에서는 제조업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 증가 등으로 4/4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숙박·음식점업은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인력 수급 차질, 수도·광열비 등 운영 비용 증가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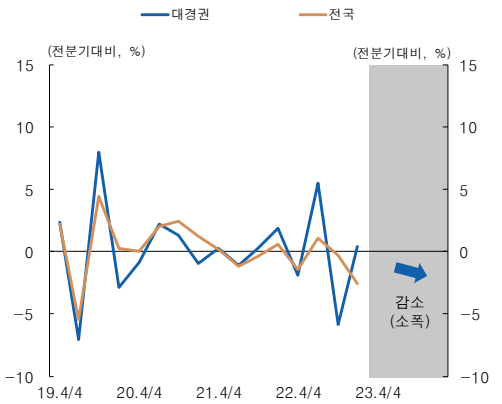
도소매업은 판촉 행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비 진작 정책 확대 효과에도 불구하고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수요 위축이 지속되어 전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은 주택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미분양물량[176]이 부담으로 작용하여 보합세를 보일 전망이다.

(3) 수 요

민간소비 소폭 감소

4/4분기 중 민간소비는 재화 소비가 3/4분기보다 소폭 감소하고 서비스 소비는 보합 수준을 나타내면서 전체적으로 전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비심리 또한 전분기에 비해 소폭 악화[177]되었다.

소매판매액지수[1)2)]



주: 1) 전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민간소비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권역별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재화 소비를 품목별로 보면 내구재의 경우 승용차[178]소비가 증가하고 가전, 가구 소비도 대형소매점의 판매촉진 행사 등으로 늘어나[179] 전분기보다 소폭 증가하였다. 준내구재는 명

173) 2023년 10~11월 중 대구공항의 운항 편수(월평균)는 1,809편으로 전분기(1,768편)보다 41편(2.3%) 증가하였고 여객수(월평균)도 동 기간 중 28.2만명에서 29.4만명으로 1.2만명(4.3%) 증가하였다.
174) 2023년 10월 중 경주 보문관광단지의 숙박객 수는 전년동월대비 15.7%, 전분기 평균 대비 4.9% 감소하였다.
175) 모니터링 결과 대구공항의 4/4분기 국제선 여객수는 코로나 이전(2019년) 대비 41% 수준으로 전망되며 일본노선은 환율 효과로, 중국노선은 중국인 관광객 증가 영향으로 인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176) 대구광역시 미분양물량은 2023년 3월 감소세로 전환한 이후 3/4분기까지 매월 평균 3.3% 수준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1만호 이상의 미분양물량이 남아있으며 주택공급률이 100%를 넘는 상황에서 2025년 상반기까지 신규입주 물량도 전국 최다인 50,207호가 예정되어 있다.(국토교통부, KB부동산, 한국부동산원)
177) 2023년 10~11월 중 대구경북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103.3으로 전분기(105.2, 월평균)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다.
178) 2023년 10~11월 중 대구경북지역 월평균 승용차 신규등록대수는 9,790대로 전분기(8,834대, 월평균)보다 증가하였다.
179) 2023년 10~11월 중 대구경북지역 신용카드 결제액(신한·하나·농협 카드 기준)에서 가전과 가구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15.1%,

품 수요 위축, 가을철 이상고온으로 인한 의복 수요 부진 등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비내구재는 차량연료 소비를 중심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180]

서비스 소비는 외국인 관광객이 유입되고 연말 단체 행사가 늘었으나 해외여행 수요가 국내여행 수요를 일부 대체하면서 전분기 수준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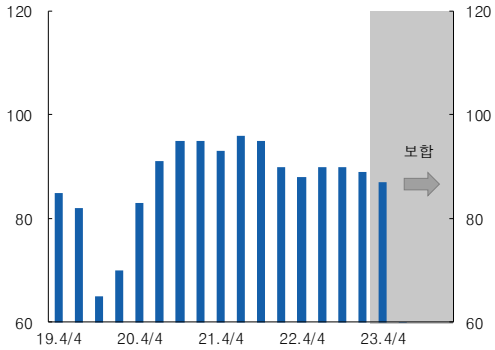
모니터링 결과 향후 민간소비는 4/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 진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181]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 수준[182] 등으로 소비심리 위축이 이어지며 재화와 서비스 소비 개선 정도는 미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 보합

4/4분기 중 설비투자는 3/4분기 수준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계장비,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및 철강 업체들은 전방수요의 불확실성, 이자비용 부담 등으로 기존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수준의 설비투자만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차전지[183], 반도체[184], 탄소섬유[185] 업체들은 생산량 증대를 위해 계획된 투자를 지속하였다.

설비투자실행BSI[1)]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설비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막대 그래프는 10월 및 11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설비투자는 4/4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차전지 관련 업체들이 생산능력을 확충하고 소재 조달을 내재화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186]할 예정이다. 다만, 대부분의 업종에서

13.3% 증가하였다. 지역 내 유통업체 모니터링 결과 4/4분기 중 혼수 입주수요가 늘어나며 가전제품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180) 2023년 10~11월 중 대구경북지역 신용카드 결제액(신한·하나·농협 카드 기준)에서 연료 판매는 전년동월대비 7.1% 감소하였다.

181) 포항시는 11월부터 포항사랑카드의 1인당 구매 한도액을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11월, 12월에 각각 200억원, 127억원을 발행하였다.

182) 2023년 10~11월 중 대구경북지역 물가수준전망CSI는 141로 전분기(136, 월평균)에 비해 상승하였다.

183) 엘앤에프가 9월에 완공한 대구의 구지 3공장(양극재 생산 공장)이 내년 3/4분기에 완전 가동될 예정으로 지속적인 설비 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빗켐은 9월부터 상주에 500억원을 투입하여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탄산리튬 생산공장을 설립 중이다. 한편 에코프로씨엔지(포항), SK에코플렌트(경주), 진송SH신에너지(포항)는 2025~2028년 가동을 목표로 연내에 이차전지 재활용 공장을 착공할 예정이다.

184) SK실트론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작년 3월부터 구미에 2조 3,000억원을 투자하여 실리콘 웨이퍼 생산라인을 증설하고 있으며, 현재 건설 중인 P3, G3 잉곳 제조공장은 내년 하반기부터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SK실트론의 올해 1/4~3/4분기 중 유형자산의 취득 규모는 6,278억원으로 전년동기(5,542억원)대비 13.3% 증가하였다.

185) 도레이첨단소재는 2025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10월부터 구미4공장 내 탄소섬유 3호기 증설을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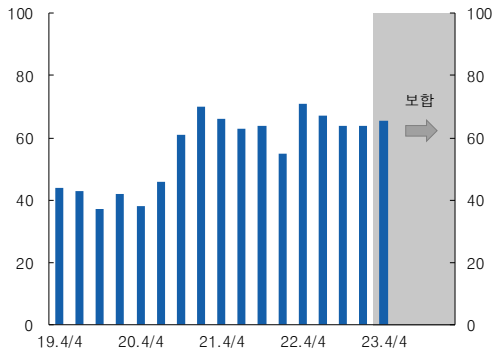
186) 포스코퓨처엠은 중국 절강화유코발트와 합작하여 내년 1/4분기부터 포항에 1조 2,000억원을 투자해 전구체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엘앤에프는 내년 상반기부터 대구에 2조 5,500억원을 투자하여 하이니켈 양극재, 중저가 배터리용 LFP양극재, 음극재 생산 공장을 갖춘 이차전지 소재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2023.11월 발표)이다.

는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기존 설비의 유지·보수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 보합

4/4분기 중 건설투자는 3/4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간부문은 주거용 건물[187]을 중심으로 전분기보다 소폭 감소하였다. 공공부문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전재정 기조[188] 하에서도 SOC 투자를 꾸준히 진행[189]하면서 보합 수준을 나타내었다.

건설업 업황BSI[1]



주: 1)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건설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막대 그래프는 10월 및 11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모니터링 결과 향후 건설투자는 4/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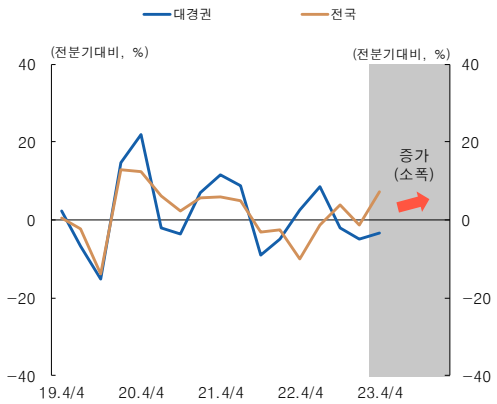
민간부문은 높은 이자비용 부담, 누적된 미분양물량, 상업용 부동산의 높은 공실률[190] 등으로 회복이 더딜 전망이다. 공공부문은 정부 SOC 예산 증액[191], 지방자치단체의 여름철 호우피해 복구 예산 집행[192] 등으로 4/4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소폭 증가

4/4분기 중 수출(일평균)은 3/4분기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품목별로 보면 휴대폰 및 부품, 기계장비, 디스플레이, 반도체가 전분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철강, 기타정밀화학원료(이차전지 소재)는 감소하였다. 자동차부품, 섬유는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187) 대구경북 주거용 건축착공면적(전년동기대비): 2022년 –35.7% → 2023년 상반기 –78.2% → 3/4분기 -19.1% → 10월 –25.4%
188) 대구광역시는 올해 세수 규모가 예산보다 6,200억원 감소한 것에 대응하여 미사용 세출예산의 30%는 지출을 취소하고 착공 전인 공사의 발주 시기를 내년 이후로 연기하는 등 연말까지 비상재정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189) 2023년 10~11월 중 대구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의 SOC 관련 월평균 예산지출액은 4,014억원으로 전분기(4,113억원, 월평균)와 비슷한 수준이었다.(지방재정365)
190) 2023년 3/4분기 중 대구경북지역 상가 및 오피스의 공실률이 전분기에 이어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대구: 중대형 상가 2023.2/4분기 15.9% → 3/4분기 16.1%, 소규모 상가 7.8% → 8.1%, 오피스 10.3% → 10.2%, 경북: 중대형 상가 19.5% → 19.8%, 소규모 상가 6.7% → 6.4%, 오피스 22.2% → 22.3%) 특히 올해 대구 입주상가의 약 91.3%가 주상복합상가 수요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주택 미분양이 상가 미분양 및 공실로 이어지고 있다.(부동산114)
191) 정부 SOC 예산은 2023년 25.0조원(본예산)에서 2024년 26.1조원(정부 예산안)으로 4.6% 증가하였다.
192) 경상북도는 6~7월 중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로 2,437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12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피해복구 공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수출(일평균)[1)]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수출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선 그래프는 10월 및 11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휴대폰 및 부품은 아이폰 신제품이 고가 라인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양산[193]되면서 부품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기계장비는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늘어나며 큰 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194] 디스플레이는 웨어러블기기용 패널 출하 호조, 차량용 패널의 신규 수주 증가에 힘입어 OLED를 중심으로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는 D램 등 전방산업의 재고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실리콘웨이퍼와 집적회로반도체 모두 증가하였다.

반면 철강은 일본, 중국, 미국으로의 수출물량이 줄어든 데다 수출가격도 하락[195]하면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기타정밀화학원료도 고가 전기차의 판매 비중 축소[196], 주요 원료 가격 하락에 따른 단가 조정[197] 등으로 수출이 부진하였다.

한편 자동차부품은 북미를 중심으로 견조한 글로벌 수요가 유지되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섬유는 섬유사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직물과 섬유제품 수출이 증가하면서 보합 수준을 나타내었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수출은 기계장비, 디스플레이, 휴대폰 및 부품, 반도체를 중심으로 4/4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계장비는 주요국의 신성장산업 및 공급망 재배치 관련 투자가 확대되며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디스플레이는 차량용 패널 수주 물량 확대[198]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휴대폰 및 부품은 신제품 출시에 따라 완제품 수출이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반도체는 전방산업 수요가 회복되며 실리콘웨이퍼를 중심으로 소폭 증가[199]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은 글로벌 경쟁 심화가 지속되면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부품은 글로벌 완

193) 9월 출시 이후 초기 수율이 저조했던 아이폰15의 생산이 정상화되면서 부품 제조업체의 대량 납품이 4/4분기로 이월된 효과가 일부 있었다. 한편 업계에서는 시리즈 중 고가의 프로 모델(프로, 프로맥스) 판매 비중이 63~65%로 이전 시리즈(57%)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4) 2023년 10~11월 중 대구경북지역 기계장비의 일평균 수출액은 전분기대비 36.0%, 대미 수출은 182.8% 증가하였다.
195) 11월 중 철강제품 수출가격은 중국 및 일본산 철강 제품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전분기대비 3.4% 하락하였다.
196)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가격 경쟁 심화로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한 중저가 전기차의 판매 비중이 높아지면서 지역 내 업체들이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삼원계(NCA, NCM) 배터리용 양극재에 대한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
197) 리튬 가격의 하락폭 확대(전년동기대비 상승률: 2023.상반기 –30.9% → 3/4분기 –50.4% → 10~11월 –73.2%)가 양극재 판매단가에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다.(한국자원정보서비스)
198)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내년 LG디스플레이의 차량용 디스플레이 출하량이 올해 대비 17.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9)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는 글로벌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이 내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전년대비 증가율: 2023년 –14.1% → 2024년 +8.5% → 2025년 +12.9%)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성차 시장 수요가 둔화 국면에 진입하면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섬유는 주요 수출국의 주문 감소, 중국업체와의 경쟁 심화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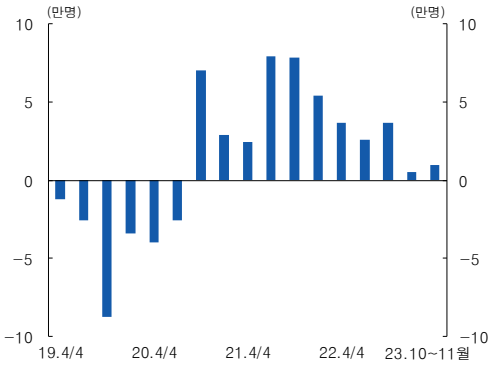
기타정밀화학원료는 신규 수주에 의한 양극재 공급[200]에도 불구하고 유럽 등에서의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며 이번 분기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4) 고 용

취업자수 증가폭 확대

10~11월 중 취업자수(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1.0만명 늘어나 3/4분기(+0.6만명)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은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제조업은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건설업은 증가폭이 축소되었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감소 전환하였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가 일용근로자를 중심으로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나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취업자수 증가[1)]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5)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

소비자물가 상승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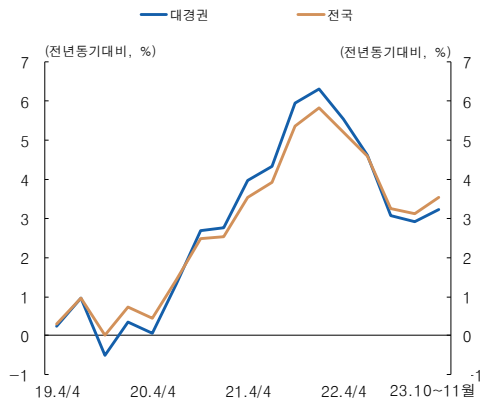
10~11월 중 소비자물가(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3.2% 상승하여 3/4분기(2.9%)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농축수산물[201]은 폭염, 폭우 등 이상기후로 작황이 부진한 과실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분기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며 석유류는 하락폭이 축소되었다. 한편 서비스는 외식비[202] 상승세 둔화로, 전기·가스·수도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폭 축소로 전분기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200) 엘앤에프는 2023년 2월 테슬라와 맺은 계약에 따라 2024~2025년 중 3.8조원 규모의 양극재를 공급할 예정이다. 에코프로비엠은 12월 1일 삼성SDI와 2024~2028년 중 44조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4년 수주물량은 포항 캠퍼스에서 생산하여 삼성SDI의 헝가리 공장에 납품할 예정이다.

201) 대구 및 경북 지역에서 과실 가격은 2023년 3/4분기에 각각 11.2%, 14.6% 상승(전년동기대비)하였으며, 10~11월 중에는 각각 29.6%, 19.8%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2023년 10~11월 중 대구경북지역 농축수산물 가격은 6.7% 상승하여 3/4분기(2.3%)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202) 대구경북지역 외식비는 2022년 3/4분기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전년동기대비, 월평균: 2022.3/4분기 8.8% → 4/4분기 8.7% → 2023.1/4분기 7.5% → 2/4분기 6.8% → 3/4분기 5.3% → 10~11월 4.4%)

소비자물가 상승률[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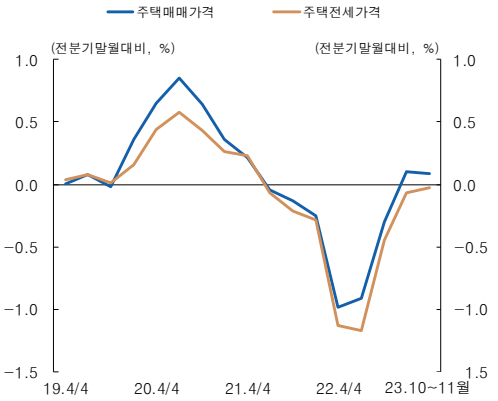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주택매매가격 상승세 유지, 주택전세가격 하락

10~11월 중 대구경북 주택매매가격(월평균)은 전분기말월대비 0.09% 상승하여 3/4분기(+0.10%)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는 누증되었던 미분양 물량이 점차 해소[203)]되고 일부 지역 내 입주물량도 줄어[204)]들면서 지역주민들의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높아진[205)] 데 주로 기인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2023.3/4분기 +0.05% → 2023.10~11월 +0.05%)는 동구와 달서구 등에서, 경북(2023.3/4분기 +0.13% → 2023.10~11월 +0.11%)은 칠곡, 김천 등에서 상승하였다.

10~11월 중 전세가격(월평균)은 전분기말월대비 0.03% 하락하여 3/4분기(-0.07%)에 비해 하락폭이 축소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2023.3/4분기 −0.16% → 2023.10~11월 −0.09%)는 달성군, 북구 등에서 부진이 완화되었으며, 경북(2023.3/4분기 −0.02% → 2023.10~11월 +0.01%)은 경주, 포항 등에서 상승 전환하였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1)2)]



주: 1) 전분기말월대비 월평균 기준
2) 한국부동산원의 표본재설계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가격조사일이 월 중에서 월 말로 변경
자료: 한국부동산원

203) 2023년 10월 대구경북지역 내 주택 미분양물량은 대구가 10,376호, 경북이 7,376호로 금년 2월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할인분양, 분양승인취소 등 업체들의 적극적인 자구노력 등에 주로 기인하였다. 한편 전국 미분양물량 대비 비중은 각각 17.8%, 12.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국토교통부)

204) 대구지역 내 입주(예정) 물량은 2023년 34,784호로 정점을 찍은 후 점차 줄어들 예정이다.(2024년 23,457호 → 2025년 10,192호 → 2026년 6,413호) 다만 경북지역 입주(예정) 물량은 큰 폭 증가(2023년 8,842호 → 2024년 23,841호)할 예정이다.

205) 2023년 11월 주택가격전망 CSI는 102로 7월 이후 기준치(100)를 계속해서 상회하고 있다.

6. 강원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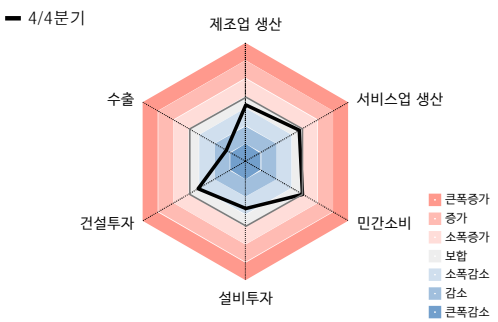
(1) 개 황

강원권 경기 보합

2023년 4/4분기 중 강원권 경기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산 동향을 보면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은 모두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수요 측면에서는 민간소비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수출은 감소하고 설비투자는 소폭 감소하였으며, 건설투자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10~11월 중 취업자 수는 증가폭이 전분기 대비 축소되었다. 10~11월 중 소비자물가는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며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도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경기 레이더[1)]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하여 평가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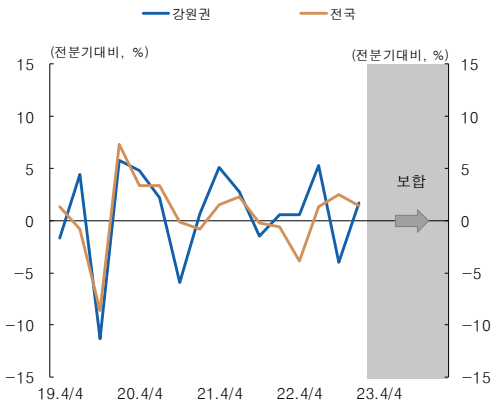
(2) 생 산

제조업 생산 보합

4/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전선, 면류, 의약품은 증가하였으나 자동차부품, 주류, 유제품, 합금철은 감소하였다. 의료기기, 시멘트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제조업 지역경기전망지수[1)2)]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전선은 해상풍력 발전용 해저케이블 수요가 지속되면서[206)] 증가하였다. 면류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대형마트 등 유통채널로의 입점이 확대되면서 증가하였다. 의약품은 국내 호흡기 감염병 확산으로[207)] 치료제 수요가 늘어난 데다가 중국을 중심으로 보톨리늄톡신(일명 '보톡스')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늘어났다.

206) LS전선의 수주잔고는 2022년 말 2.7조원에서 2023.3/4분기 말 3.0조원으로 증가하였다.
207) 10~11월 중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influenza-like illness ratio)은 전분기(주평균) 및 평년(코로나19 이전 5년 주평균) 동기대비 각각 170.7% 및 533.2% 증가하였다.(질병관리청)

반면 자동차부품은 고금리 지속 등으로 완성차 수요가 둔화되면서 내수 및 수출이 모두 감소하였다. 주류는 가격 인상[208]에 따른 수요 둔화, 권역 외 경쟁업체의 신제품 출시 및 일본맥주 수입 증가[209] 등 경쟁 심화로 감소하였다. 유제품은 출생아수 감소에 따른 분유 판매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건강기능식품 경쟁이 심화되면서 감소하였다. 합금철은 철강 공급과잉 해소가 지연되면서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의료기기는 심장충격기 등의 판매 증가에도 불구하고, 초음파진단기가 전분기 신제품 생산이 집중된 데 따른 기저효과로 줄어들면서 보합 수준을 보였다. 시멘트는 국내 건설경기 둔화에도 기착공된 공사가 진행되면서[210]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4/4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선은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면류는 글로벌 인스턴트 라면 수요가 지속되면서 증가세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의료기기는 초음파진단기 신제품 판매가 본격화되면서, 의약품은 중국 및 유럽 등으로의 보톨리눔톡신 수출이 늘어나면서 증가할 전망이다. 유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관련 신규 생산라인의 증축에 따른 양산이 본격화되면서[211] 부진이 완화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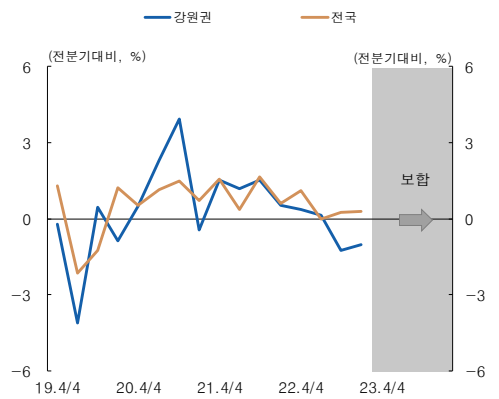
반면 주류는 고물가에 따른 외식 소비 둔화[212]가 지속되면서, 시멘트는 누적된 건축 착공물량 감소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부품은 수출 차종의 단산으로 발주가 줄어들면서 감소할 전망이다. 합금철은 중국 부동산경기 부진에 따른 철강 공급과잉 해소 지연으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업 생산 보합

4/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예술·스포츠·여가업, 부동산업은 증가하였으나 숙박·음식점업은 감소하였다. 운수업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서비스업 지역경기전망지수[1)2)]



주: 1) 전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208) 하이트진로는 11월 9일부터 주요 맥주 제품 출고가를 평균 6.8% 인상하였다.
209) 10~11월 중 일본으로부터의 맥주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394.7% 늘어나며 증가율이 전분기(299.4%)보다 크게 확대되었다.
210) 10월 중 전국 건설기성(불변, 계절조정)은 전분기(월평균) 대비 1.7% 증가하였다.
211) 권역내 유제품 업체는 단백질 음료의 성장으로 기존 외주생산하던 멸균팩을 자체 생산하기 위한 생산라인을 증축하였으며, 2024년 1/4분기 중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212) 10월 중 전국 음식점 및 주점업 생산지수(불변지수)는 전년동기대비 5.3% 줄어들며 감소세를 지속(2/4분기 –3.4% → 3/4분기 –4.9% → 10월 –5.3%)하였다.

도소매업은 대형소매점의 부진[213]에도 불구하고 승용차[214] 및 차량연료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예술·스포츠·여가업은 골프장[215] 및 스키장[216]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증가하였다. 부동산업은 주택매수심리 개선[217]으로 주택 매매거래가 늘어나면서[218]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숙박·음식점업은 일본 등 근거리 해외여행 증가[219] 등으로 지역 방문객이 줄어들면서[220] 감소하였다. 한편 운수업은 항공 여객수[221]가 증가하였으나, 철도[222] 및 버스 이용객수가 소폭 감소하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4/4분기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숙박·음식점업 등 관광 관련 산업은 겨울철 야외 스포츠 활동을 중심으로 개선되겠으나, 해외여행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증가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도소매업은 승용차 수요 둔화, 고물가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업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파트 공급물량 증가[223]에 따른 부담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감소할 전망이다.

농축산물 출하 소폭 감소

4/4분기 중 농축산물 출하는 전분기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산물의 경우 파프리카, 토마토 등의 과채류는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생육 부진으로, 고랭지채소는 전분기 출하량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줄어들면서 감소하였다. 축산물도 아프리카돼지열병(화천, 10월), 럼피스킨병[224] 등 전염병 발생 등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향후 농산물은 과채류의 출하면적 감소, 비수기의 영향 등으로 전분기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물의 경우 소는 한우가격 약세 지속 등으로, 돼지 사육두수는 사육의향 저하 등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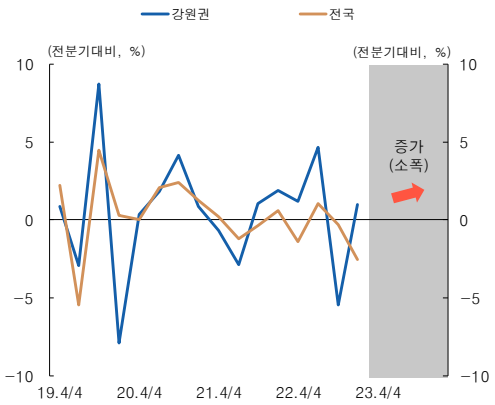
213) 10월 중 강원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전년동기대비 7.3% 감소하며 전분기(-5.8%)보다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214) 10~11월 중 강원지역의 승용차 신규등록대수(월평균)는 3,524대로 전분기(3,270대) 대비 7.8% 증가하였다.
215) 10~11월 중 강원지역 실외골프장 카드사용액(신한·하나·농협카드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0.6% 감소하였으나 전분기(-8.0%)보다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216)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국내 스키 인구는 엔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2020~2021시즌 145.6만명 → 2021~2022시즌 382.6만명 → 2022~2023시즌 421.1만명)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 시즌권 판매가 늘어나는 등 2023~2024시즌에도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스키장경영협회)
217) 10~11월 강원지역 주택매매수급지수(100 초과시 수요 우위, 월평균)는 94.3으로 전분기(92.6)보다 1.7p 상승하였다.(한국부동산원)
218) 10월 중 강원지역 주택 매매거래는 전년동기대비 37.2%, 전분기(월평균) 대비로는 3.1% 증가하였다.(한국부동산원)
219) 10월 중 한국인의 코로나19 이전 대비 일본관광 회복률은 엔저 등으로 전분기대비 큰 폭 상승(3/4분기 164.8% → 10월 319.9%, 2019년 동기 대비)하였다.(일본관광청)
220) 10~11월 중 강원지역 방문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10.0% 감소하면서 전분기(-3.9%)보다 감소폭이 확대되었다.(한국관광공사)
221) 10월 중 원주공항의 여객 수(도착 기준)는 전분기(월평균)대비 21.4% 증가하였다.(한국공항공사)
222) 10~11월 중 강릉선 등 강원지역 주요 지역의 철도 이용객수(월평균, 하차기준)는 전분기대비 0.3% 감소하였다.(한국철도공사)
223) 2024년 1/4분기 중 강원지역 아파트 신규입주물량은 3,762세대로 2023년 4/4분기(2,418세대) 대비 55.6% 증가할 것으로 집계되었다.(한국부동산원)
224) 럼피스킨병은 소에게서 나타나는 피부병(가축전염병1군)으로, 도내에서는 양구(10.23일)를 시작으로 횡성, 고성, 철원 등지에서 현재까지 총 7건 발생하였다.

(3) 수 요

민간소비 소폭 증가

4/4분기 중 민간소비는 재화 소비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서비스 소비가 전분기 수준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는 전분기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매판매액지수[1)2)]



주: 1) 전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민간소비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권역별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재화 소비를 품목별로 보면 내구재는 주택 매매거래 증가 등에 따른 가구·가전제품 소비 부진 개선, 승용차 판매 호조 등으로 증가하였다. 준내구재는 의복과 잡화[225)]를 중심으로, 비내구재는 차량연료를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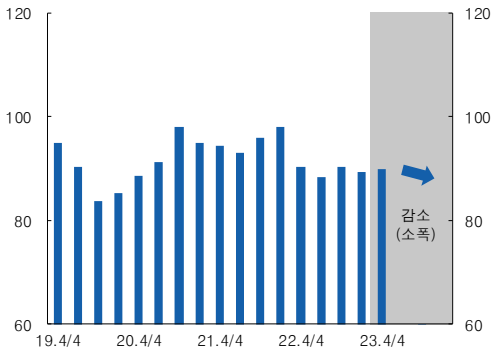
서비스 소비는 방문객 감소, 고물가에 따른 외식 수요 부진 등으로 숙박·음식점업 등은 감소하였으나 골프장, 스키장 등 레저시설 이용이 늘어나면서 전분기 수준을 보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민간소비는 권역내 관광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 부진[226)] 등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 소폭 감소

4/4분기 중 설비투자는 전분기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비투자실행BSI[1)]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설비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막대 그래프는 10월 및 11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225) 10~11월 중 강원지역 의복 및 잡화 카드사용액(신한·하나·농협카드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6.7% 증가하면서 전분기(+5.6%)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226) 10~11월 중 강원지역의 소비자심리지수는 전분기(월평균, 102.5)보다 3.5p 하락한 99.0을 기록하면서 비관적(100 미만)으로 전환하였다.

레저시설은 스키장 이용객 증가, 동계청소년올림픽[227] 개최에 대비한 시설 정비 및 노후장비 교체 등으로 투자가 증가하였다. 반면 숙박업은 관광객 감소[228]로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일부 업체들이 전분기에 리모델링 및 매장 리뉴얼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감소하였다. 음식료품은 유제품 업체의 공장 증설이 마무리되며 감소하였다. 도소매업은 대형마트가 금년 중 매출이 부진하면서[229] 설비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한편 시멘트업은 탄소 저감을 위한 친환경 설비 구축이 지속되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설비투자는 4/4분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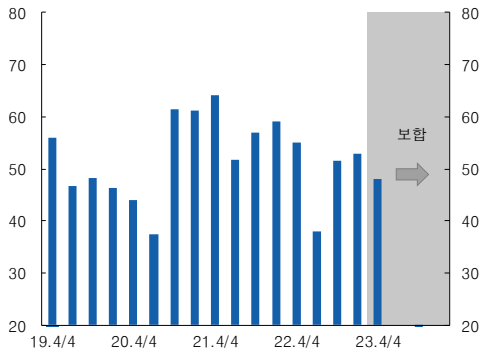
자동차부품은 신규 차종 수주, 매출 다변화를 위한 신제품 양산 등으로 증가하고, 시멘트업은 친환경 시설투자를 지속할 전망이다. 그러나 대다수 업종이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노후설비 교체와 같은 소규모 투자만 집행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건설투자 보합

4/4분기 중 건설투자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간부문의 경우 주거용 건물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비주거용 건물은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건물 착공면적이 줄어들면서[230] 감소하였다. 반면 공공부문은 지방정부 SOC 예산집행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231]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건설업 업황BSI[1]



주: 1)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건설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막대 그래프는 10월 및 11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227)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는 2024년 1월 19일~2월 1일 중 평창, 강릉, 정선, 횡성에 위치한 경기장에서 개최되어 70여 개국, 2,9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228) 1~11월 중 강원지역 방문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1.3% 감소하였다.(한국관광데이터랩)
229) 1~10월 중 강원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불변지수)는 전년동기대비 9.7% 감소하였다.
230) 10월 중 강원지역 건물 착공면적(전년동기대비)은 40.3% 감소(주거용 –22.5%, 비주거용 –49.9%)하여 전분기(-20.,4%)보다 감소폭이 확대되었다.(국토교통부)
231) 10~11월 중 강원지역 지방정부 SOC 예산집행액은 전년동기대비 21.8% 증가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건설투자는 4/4분기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간부문은 재건축주택, 신규주택 등의 수주액 감소[232]가 계속되는 가운데 신규착공 위축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며 감소할 전망이다. 한편 공공부문은 신규 SOC 사업 착공[233] 등으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수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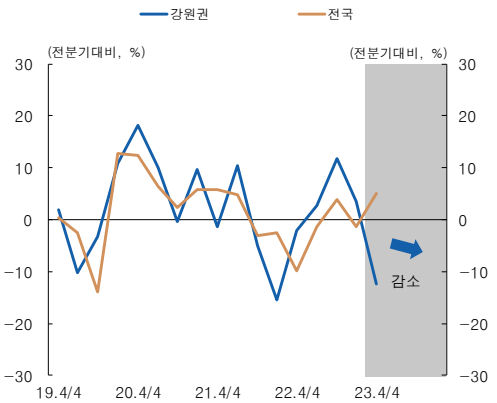
4/4분기 중 수출(일평균)은 전분기보다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234]

품목별로는 의약품, 화장품, 면류는 증가하고 의료기기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선, 자동차부품, 시멘트, 합금철은 감소하였다.

의약품은 보톨리늄톡신[235]과 콜레라 백신[236] 수요가 늘어나면서 증가하였다. 화장품은 필러[237] 수출 반등, 중국 광군제 성수기 매출 호조에 힘입어 증가하였다. 면류는 글로벌 인스턴트 라면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대형마트 등 현지 유통망 확대로 증가하였다.[238] 의료기기는 주력 품목인 초음파진단기가 감소하였으나 심전계, X-선 촬영기, 심장충격기 등의 수출 확대로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전선은 견조한 해저케이블 수요에도 불구하고 전분기에 출하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로 큰 폭 감소하였다. 자동차부품은 완성차 수요가 둔화되면서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감소하였다.[239] 시멘트는 국내 판매단가 인상에 따라 업체들이 해외 판매비중을 축소하면서 감소하였다. 합금철은 철강 공급과잉으로 단가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량도 줄어들면서 감소하였다.

수출(일평균)[1)]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수출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선 그래프는 10월 및 11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32) 10월 중 강원지역의 민간부문 건설수주액은 전년동기대비 37.2% 감소하면서 전분기(-68.3%)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하였고, 공공부문 수주액도 전년동기대비 6.3% 감소하였다.
233) 2024년 상반기 중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사업비 9,309억원)이 착공될 예정이다.(강원특별자치도)
234) 10~11월 중 강원지역 수출(일평균)은 전분기(월평균) 대비 12.3% 감소하였다. 다만 이 중에서 전선(-94.5%)의 기여도가 –15.6%p였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늘어나면서 3.3%p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5) 10~11월 중 강원지역 보톨리늄톡신 수출은 중국(+174.6%, 전분기 대비, 월평균)을 중심으로 47.4% 증가하였다.
236) 유바이오로직스는 10월 중 유니세프 콩고민주공화국과 113억원 규모의 콜레라 백신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완료하였다.
237) 필러는 의료기기법에서 정한 의료기기(4등급)에 해당하나 수출 HS code상 기타화장품으로 분류된다. 10~11월 중 강원지역 필러 수출(HS code 3304.99.9000)은 중국,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전분기(월평균)대비 16.9% 늘어나며 전분기(-18.3%)의 부진에서 회복했다.
238) 10~11월 중 강원지역 면류 수출은 미국을 중심으로 전분기(월평균) 대비 16.3% 증가하였다.
239) 10~11월 중 강원지역 자동차부품 수출은 미국(–16.7%, 전분기 대비, 월평균), 멕시코(–39.7%) 등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줄어들며 15.4% 감소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수출은 4/4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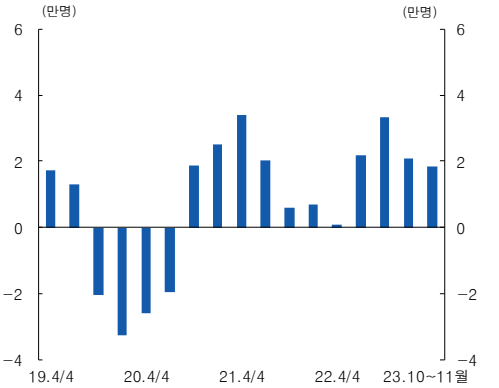
전선은 해저케이블 출하가 회복되면서, 시멘트는 국내 건설경기 둔화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업체들이 수출물량을 늘리면서 반등할 전망이다. 의료기기는 초음파진단기의 신제품 판매 본격화로[240], 화장품은 필러 수출 호조 지속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약품은 보톨리늄톡신의 유럽 수출이 정상화되면서[241], 면류는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유통망이 확대되면서 증가세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반면 자동차부품은 북미지역 수출 차종의 단산으로, 합금철은 중국 부동산경기 부진에 따른 철강 공급과잉 지속으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4) 고 용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

10~11월 중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1.8만명 늘어나며 증가폭이 전분기(2.1만명) 대비 축소되었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 및 제조업은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건설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등은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는 감소로 전환되었으며, 임금근로자는 상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취업자수 증가[1)]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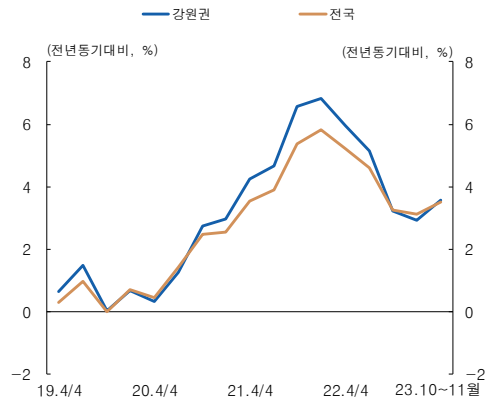
240) 삼성메디슨은 2023년 7월 중급형 초음파진단기 신제품 'V6'를 출시하여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였다.
241) 휴젤은 3/4분기 중 유럽 파트너사와의 계약 재정비로 인해 중단되었던 유럽으로의 수출이 4/4분기 중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

소비자물가 상승폭 확대

10~11월 중 소비자물가(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3.6% 상승하여 전분기(2.9%) 대비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상품 물가는 전기·가스·수도 가격의 오름세가 둔화되었으나, 국제유가 기저효과 소멸에 따른 석유류 가격 하락폭 축소[242], 과채류를 중심으로 한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243] 등으로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서비스 물가는 집세의 오름폭이 소폭 확대되었으나 공공서비스 및 개인서비스 물가의 오름폭이 대체로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보임에 따라 상승폭이 유지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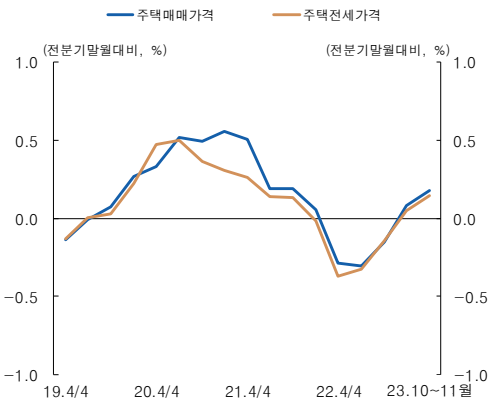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 상승폭 확대

10~11월 중 주택매매가격은 전분기말월 대비 0.18% 상승하여 전분기(0.08%)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이는 원리금 상환부담, 미분양 물량 증가[244] 등에 따른 수급 제약요인이 지속되고 있으나 저가 매수세 유입 등으로 매수심리가 개선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동해(0.53%), 속초(0.38%), 강릉(0.25%) 등의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격은 0.15% 상승하며 전분기(0.05%) 대비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1)2)]



주: 1) 전분기말월대비 월평균 기준
2) 한국부동산원의 표본재설계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가격조사일이 월 중에서 월 말로 변경
자료: 한국부동산원

242) 10~11월 중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월평균)는 87.0달러/배럴로 전년동기대비 1.5% 하락하였으나, 전년도 3/4분기의 높은 기저효과가 4/4분기 들어 사라지면서(2022.3/4분기 98.0 → 10~11월 88.3) 하락폭이 전분기(-11.5%) 대비 크게 축소되었다.
243) 10~11월 중 강원지역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동기대비 5.6% 상승하였으며 품목별로는 사과(63.6%), 딸기(39.3%), 오이(35.3%) 등의 오름폭이 컸다.
244) 10월 말 강원지역 미분양주택 수는 3,861호로 전년말(2,648호) 대비 1,213호(45.8%) 증가하였다.(국토교통부)

7. 제주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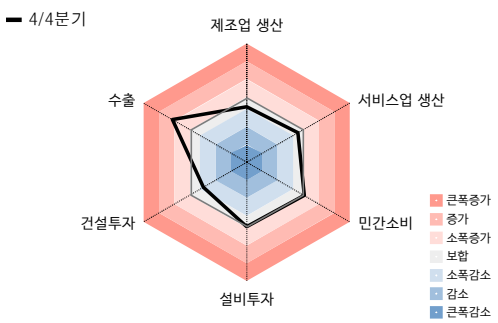
(1) 개 황

제주권 경기 보합

2023년 4/4분기 중 제주권 경기는 3/4분기 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축수산업 생산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보합 수준을 나타내었다. 수요 측면에서는 수출이 증가하고 민간소비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건설투자는 소폭 감소하였고 설비투자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10~11월 중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0.6만명 줄어 3/4분기 0.1만명 증가에서 감소 전환하였다.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며,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은 전분기보다 하락폭이 소폭 축소되었다.

경기 레이더[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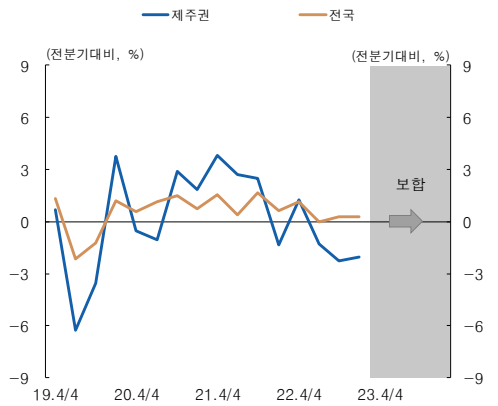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하여 평가한 것임

(2) 생 산

서비스업 생산 보합

4/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3/4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업종별로는 카지노업, 숙박업, 도소매업, 레저업이 증가하였고 부동산업, 운수업은 감소하였다. 임대업, 여행업 등은 보합 수준을 보였다.

서비스업 지역경기전망지수[1)2)]



주: 1) 전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카지노업은 최근 중국을 중심[245)]으로 구매력을 갖춘 외국인 방문객이 늘면서 증가[246)]하였다. 숙박업은 내국인 개별 관광객 감소세 지속[247)]으로 특급호텔 수요가 부진[248)]하였으나, 내국인 단체 관광객[249)] 및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콘도형 숙소 및 중저가 호텔 방문객이 늘면서 전분기보다 소폭 증가하였다. 도소매업은 대형마트 중심의 온라인 판매 확대[250)], 대규모 할인 행사 및 프로모션 효과[251)] 등으로 소폭

245) 10월 중 중국인 관광객은 6.2만명으로 3/4분기(월평균 5.5만명)에 비해 14.3% 증가하였다.
246) 다만 올해 도내 8개 카지노 매출액의 약 80%가 도심에 위치한 그랜드 하얏트 호텔 내 드림타워 카지노에 집중된 반면 나머지 업체들의 회복세는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올해 10~11월 중 드림타워 카지노의 순매출액은 378억원으로 작년 동기간 규모의 5.7배에 달한다.

증가하였다. 레저업은 내국인 골프장 수요의 해외 이전이 지속되었으나 외국인 관광객 증가 효과가 일부 나타나며 소폭 증가하였다.

부동산업은 주택매매가격 약보합세[252]가 지속되는 가운데 거래량 증가도 제한적[253]임에 따라 감소하였다. 운수업은 항공운송의 경우 중국 노선을 중심으로 국제선이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국내선의 운항편수와 이용객수 감소[254]가 두드러지면서 소폭 감소하였다. 다만 전세버스 가동률[255]은 전분기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으며 크루즈 이용도 증가[256]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4/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제주지역 관광객은 내국인의 경우 해외여행 수요 지속에 대한 불확실성[257]이 크나 외국인은 중국인 단체 관광 회복세가 여행사를 통한 모객 및 전세기 등 항공편 확보가 진행되면서 점차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258]된다. 이에 따라 중저가 호텔, 레저업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 관련 업종에서는 개선세가 예상되나, 특급호텔, 임대업(렌터카) 등 내국인 관광객 관련 업종은 회복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생산 보합

4/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은 3/4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도체 수출이 상당폭 증가[259]하였으나 내국인 개별 관광객수 감소에 따른 식음료의 감소[260]와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레미콘 생산 감소가 지속[261]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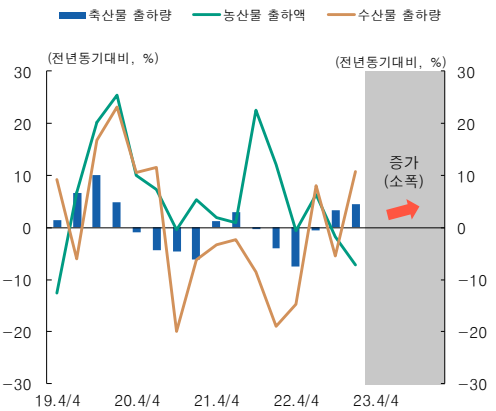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4/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도체 생산이 증가세를 지속[262]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식음료는 관광객 회복 지연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47) 10월 중 제주지역 내국인 개별 관광객은 95.7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4.2만명(12.9%) 줄어 3/4분기(월평균 -13.6만명, -11.4%)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248) 다만 대규모 카지노를 보유하고 있는 그랜드 하얏트(드림타워 카지노), 신화월드(랜딩 카지노) 등 일부 특급호텔은 외국인 방문객 증가로 예약률 호조가 지속되었다. 특히 그랜드 하얏트의 경우 10~11월 중 외국인 투숙 비율이 약 60%로 전년동기(약 15%)대비 크게 상승하였다.
249) 10월 중 제주지역 내국인 단체 관광객은 14.5만명으로 수학여행 수요 등으로 3/4분기(월평균 10.1만명)에 비해 43.8% 증가하였다.
250) 도내 대형마트들의 온라인 매출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설비투자 역시 신규 매장 오픈이나 리모델링보다는 배송 관련 설비 및 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서귀포시에 입지한 마트들이 제주시까지 배달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며 온라인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51) 코리아세일페스타(11.11~11.30) 기간 50% 할인 및 1+1 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252) 10~11월 중 제주지역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은 전분기말월대비 각각 0.06%, 0.03% 하락하여 3/4분기(-0.1%, -0.08%)에 이어 약보합세가 지속되었다.
253) 10월 중 제주지역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은 각각 538건, 1,057건으로 3/4분기(월평균 503건, 1,014건)보다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254) 10~11월 중 제주지역 국내선 운항편수는 26,991편으로 전년동기대비 8.3% 감소하여 3/4분기(-6.9%)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며 국내선 이용객수는 일평균 7.8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0.1% 감소하여 3/4분기(-7.6%)보다 감소세가 확대되었다.
255) 10월 중 제주지역 전세버스 가동률은 46.9%로 수학여행 증가 등의 영향으로 3/4분기(월평균 18.1%)보다 개선되었다.
256) 10월 중 제주지역 크루즈 기항횟수는 12회로 3/4분기(월평균 6.3회)보다 증가하였으며 승객수 역시 16,292명으로 3/4분기(월평균 10,745명)보다 확대되었다.
257) 11월 내국인 출국자 수가 2019년 11월 대비 93%까지 회복됨에 따라 내년에는 펜트업 효과로 인한 해외여행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다만 해외여행 겨울 성수기(12~2월) 등으로 연초까지는 내국인의 제주방문 감소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258) 10월 중 제주지역 중국노선 운항편수는 727편으로 2019년 동월의 66.6%에 그치고 있으나, 전세기 운항이 11월 3일 제주와 중국 정저우 간 노선(180석 규모, 주 2회) 시작으로 향후 허페이, 푸저우, 청두, 충칭 등으로 전세기 노선이 확대될 예정이다.
259) 최근 홍콩, 중국, 인도, 대만 등을 중심으로 5G 통신 기기 수요가 확대되며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260) 다만 주류의 경우 원부자재(주정, 유리병, 종이 등) 가격 상승에 따른 출고가 인상 효과로 수요 감소를 일정 부분 상쇄했다.
261) 10월 중 제주지역 레미콘 출하량은 전년동월대비 9.9% 감소하여 3/4분기(-14.5%)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262) 제주반도체는 5G IoT 시장에서 퀄컴 등 칩셋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시장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향후 홍콩,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5G IoT 시장 수요가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축수산물 출하 소폭 증가

4/4분기 중 농축수산물 출하는 전분기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품목별로는 농산물과 축산물이 증가하였으나 수산물은 감소하였다.

농축수산물 출하[1)]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농축수산물 출하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 품질평가원, 통계청

농산물은 노지감귤이 기상호조에 따른 상품성 개선과 육지부 타 과일 가격 상승의 반사효과 등으로 가격이 오름세[263)]를 보이는 데다 월동채소(무, 당근) 등의 출하량이 늘면서[264)] 증가하였다. 축산물은 소비촉진 행사[265)] 등에 따라 돼지고기를 중심으로 출하량이 증가하였다.

수산물은 관광객 감소에 따른 수요 둔화 및 수온 상승 영향 등으로 참조기를 중심으로 출하량이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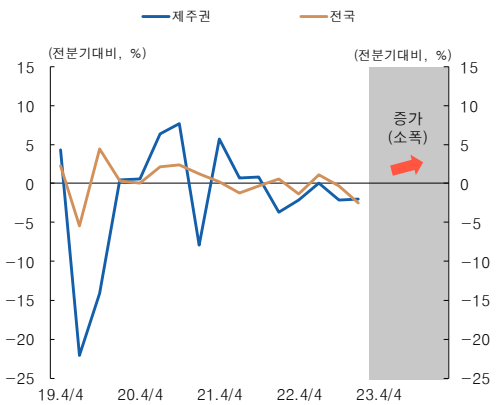
모니터링 결과 향후 농축수산물 출하는 4/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산물은 만감류[266)]를 중심으로 출하액이 양호할 것으로 보이나 수산물은 내수시장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 수 요

민간소비 소폭 증가

4/4분기 중 민간소비는 서비스 소비가 다소 줄었으나 재화 소비가 늘면서 3/4분기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소매판매액지수[1)2)]



주: 1) 전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민간소비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권역별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재화의 경우 평년보다 높은 기온 및 강수일수 감소[267)] 등 영향으로 야외활동이 늘면서 스포

263) 출하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노지감귤의 경우 당도 축적시기인 9~10월 중 강수량이 평년 대비 적어 당도가 높고 지난해에 비해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
26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올해 겨울당근과 무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 및 작황 호조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87.8%, 18.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생산량 증가로 인해 도매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265) 10~11월 중 도내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한돈데이 기념 할인행사가 진행되었다.
266) 제주도는 11월 13일부터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24.1.15)를 실시하고 있다. 동 제도를 통해 한라봉, 천혜향 등 만감류 출하 전 당도 및 산 함량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을 충족한 상품만 출하시킴으로써 고품질 유지 및 안정적 가격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츠·레저용품 등 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가 증가하였다. 비내구재 역시 차량연료,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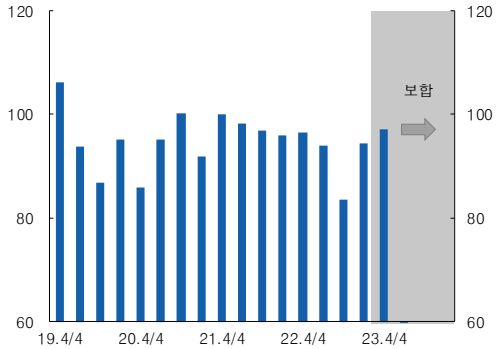
서비스의 경우 카지노, 골프장, 면세점 등 외국인 관광객 증가의 영향을 받은 업종에서는 소비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내국인 감소 영향이 큰 숙박업소, 렌터카 등의 소비 부진으로 감소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소비는 4/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내국인 관광객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이나 중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의 영향으로 관련 업종에서 소비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로 인한 개선세는 과거보다는 제한적[268]일 것으로 전망된다.

설비투자 보합

4/4분기 중 설비투자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내국인 관광객수 감소의 영향이 큰 특급호텔과 골프장[269] 등이 소규모 환경 개선 등 현상 유지 수준의 투자만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실행BSI[1]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설비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막대 그래프는 10월 및 11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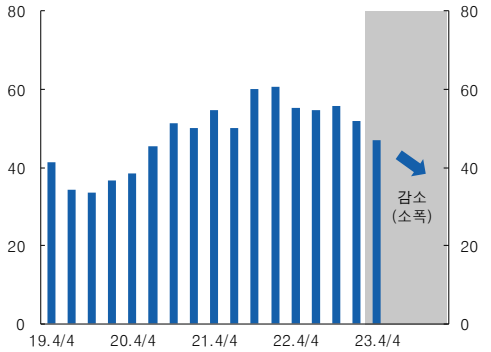
모니터링 결과 향후에도 설비투자는 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다수 업체들이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높은 인건비, 원자재, 공공요금 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향후 당분간 설비투자보다는 비용 절감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응답했다.

건설투자 소폭 감소

4/4분기 중 건설투자는 전분기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공공부문은 관급 공사 발주 등으로 비교적 양호[270]한 모습을 보였으나 민간부문은 주택경기 위축에 따라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271]하였다.

267) 10월 제주지역 평균기온은 19.2도로 평년 대비 0.5도 높았으며 강수일수(4.3일)는 평년 대비 2.0일 적었다.
268) 제주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중국인들의 관광 및 소비 패턴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단체관광(유커)에서 개별관광(싼커) 중심, 명품 등 고가품 소비에서 유명 음식점 및 카페, 로컬 체험형 소비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의 1인당 소비액(객단가) 역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69) 3/4분기 제주지역 골프장 내장객 수는 전년동기대비 11.7% 줄어 2/4분기(-16.0%)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270) 서귀포시 중문동 국제컨벤션센터 인근 부지에 연면적 2만 2,204㎡, 880억원 규모의 'MICE 다목적 복합시설' 건립이 2025년 8월 준공을 목표로 10월 착공에 들어갔다.
271) 10월 중 제주지역 건축착공면적은 전년동기대비 38.2% 줄어 3/4분기(-63.5%)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특히 주거용 건축착공면적은 3/4분기(-79.1%)에 이어 10월(-62.6%)에도 큰 폭 감소하였다.

건설업 업황BSI[1)]



주: 1)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건설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막대 그래프는 10월 및 11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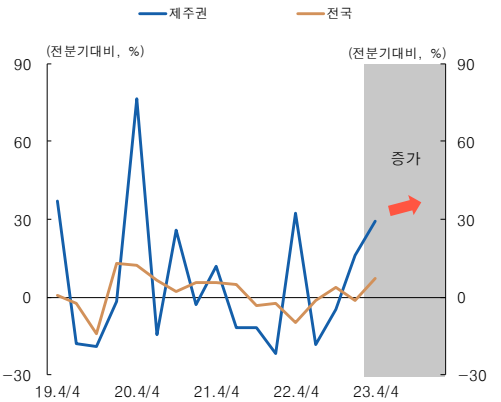
모니터링 결과 향후 건설투자는 4/4분기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공부문은 내년도 SOC 관련 예산[272)]이 늘면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민간부문은 고금리로 인한 자금조달 애로, 분양수요 위축[273)] 등으로 신규 사업 부진이 이어지며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증가

4/4분기 중 수출(일평균)은 전분기대비 증가하였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농림수산물, 화장품 등이 증가하였고 화학제품, 승용차 등은 소폭 감소하였다.

반도체는 홍콩, 중국 중심의 IoT 관련 메모리 수요로 크게 증가[274)]하였다. 농림수산물은 감귤, 키위 등 과실류를 중심으로 호조를 보였고 넙치, 전복, 소라 등의 일본 수출이 확대되었다. 화장품의 경우 베트남을 중심으로 청년층의 제주산 화장품에 대한 선호가 늘며 증가하였다.

수출(일평균)[1)]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수출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선 그래프는 10월 및 11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모니터링 결과 향후 수출은 4/4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의 경우 내년에도 홍콩, 대만, 인도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갈치를 중심으로 대중국 수산물 수출이 증가세[275)]인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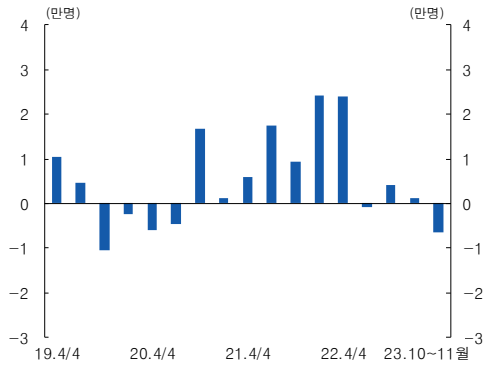
272) 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의 국토 및 지역개발 관련 금액은 올해 예산 대비 835억원(+20.6%) 증액되었다.
273) 10월 중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 수는 2,523호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갱신하였고 특히 준공 후 미분양된 사례도 1,001건으로 역시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분양시장 위축으로 주택 인허가 실적이 1~10월 중 전년동기대비 25.3% 감소하였다.
274) 10~11월 중 제주지역의 반도체 일평균 수출액은 49.5만 달러로 3/4분기에 비해 33.3% 증가하였는데, 홍콩이 전체 규모의 79.6%를 차지하였다.
275) 10~11월 중 제주지역의 대중국 수산물 일평균 수출액은 3/4분기의 19배로 증가했으며 이 중 갈치가 81.6%를 차지하였다.

(4) 고 용

취업자수 감소 전환

10~11월 중 취업자수(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0.6만명 줄어 감소 전환하였다. 업종별[276]로는 농림어업의 경우 인건비 상승, 외국인 근로자로의 대체 가속화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277]되었다. 건설업 역시 업황 부진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감소하였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도 내국인 관광객 감소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는 임시·일용근로자, 비임금근로자는 무급 가족종사자를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취업자수 증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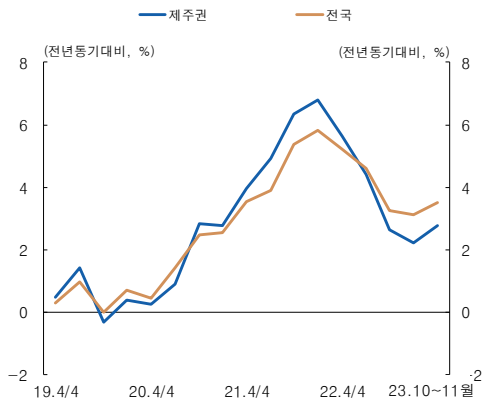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5)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

소비자물가 상승폭 확대

10~11월 중 소비자물가(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2.8% 오르며 전분기(2.0%)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품목별로는 과실, 채소, 곡물류를 중심으로 농산물의 상승폭이 확대되었다.[278]

소비자물가 상승률[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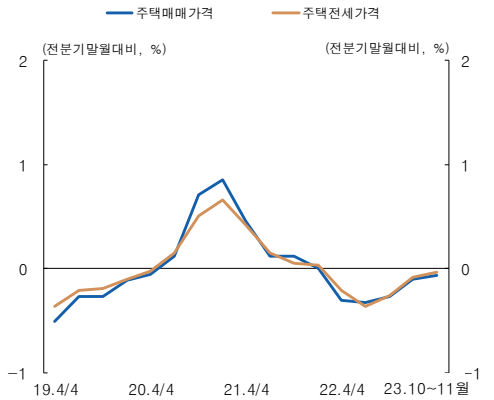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276) 업종별 취업자수 증감(3/4분기 → 10~11월 평균, 만명) : 농림어업 –1.3만명 → –1.1만명, 건설업 –0.3만명 → –0.4만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0.6만명 → +0.3만명
277) 특히 수산업의 경우 생산 비용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폐업 및 휴업 상태의 양식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78) 10~11월 중 제주지역 농산물 물가는 전년동기대비 14.4% 상승하여 3/4분기(+5.2%)보다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하락폭 축소

10~11월 중 주택매매가격(월평균)은 전분기말월 대비 0.06% 하락하여 3/4분기(-0.10%)에 비해 하락폭이 소폭 축소되었다. 이는 매수심리가 완만하게 개선[279]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0.06% 하락하였다. 전세가격(월평균, 전기말월대비)은 0.03% 내려 3/4분기(-0.08%)에 비해 하락폭이 축소되었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1)2)]



주: 1) 전분기말월대비 월평균 기준
2) 한국부동산원의 표본재설계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가격조사일이 월 중에서 월 말로 변경
자료: 한국부동산원

279) 10~11월 중 제주지역 주택매매수급지수와 전세수급지수(월평균)는 각각 87.9, 93.4로 전분기(87.4, 92.4)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